



1

1978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8. 1호

(루게 363)



## ◆◆◆◆◆◆◆◆◆◆ 차 례 ◆◆◆◆◆◆◆◆◆◆

신년사 .....	3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	7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새해의 노래 .....	18
수령님께 새해의 인사를 드립니다 .....	21
잠 못드는 밤에 .....	24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혁명문학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	25
미래를 위한 초소 .....	30
새날에 사는 마음 .....	34
빛나라, 주체의 조국이어 .....	36
탄 생 (외 1 편) .....	38
우리의 충성을 심어가꾸자 .....	39
노래는 이 가슴에 맺혀 .....	41
아, 다시금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구나 .....	42
탈피 .....	43
지식인문제를 취급한 장편을 .....	55
영웅전사들을 형상한 새 중편소설을...	55
높은 언덕으로! .....	56

풍만한 서정을 담아 .....	56
보다 다양하고 생활적인 시를 .....	57
혁명적인 가사들을 더 많이 창작하겠다 .....	57
교육체제의 찬란한 빛발아래 행복하게 .....	58
자라나는 새세대의 모습을! .....	58
혁명적시문학의 사상예술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	59

# 김일성

## 신년사

(1978년 1월 1일)

동지들!

우리는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승리의 한해를 보내고 제 2 차 7 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서는 희망찬 새해 1978 년을 맞이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지름길위에 또 하나의 빛나는 이정표를 세우고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진군을 시작하는 오늘 온 나라는 끝없는 환희와 혁명적정열로 들끓고있습니다.

나는 승리자의 높은 긍지와 용감한 투쟁정신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영웅한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인테리들을 비롯한 전체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멀리 이국땅에서 사회주의조국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높은 민족적자부심과 애국적열정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는 60 만 재일동포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새해의 축복을 보냅니다.

1977 년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된 자랑찬 승리의 한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당과 혁명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힘찬 로력투쟁을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빛나게 완수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6 개년계획수행과정에 일부 경제부문에 일시적으로 조성되었던 긴장성을 완전히 풀었으며 새로운 더 높은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한 기초우에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자신만만하게 제 2 차 7 개년계획수행에 들어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용감한 수송전사들은 《수송혁명 200 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수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켰습니다. 수송전사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철도운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합수송 방침이 적극 관철됨으로써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취공업부문의 로동계급도 일을 잘하였습니다. 채취공업부문의 충직한 로동계급은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방침을 받들고 탄광, 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고 기술장비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석탄과 광물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였습니다. 특히 덕천, 개천, 구장 지구의 탄광련합기업소들과 득장탄광, 안주종합탄광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충성의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최근에 석탄생산량을 지난해에 비하여 2 배로 높이는 혁신을 알렸습니다.

지난해에 기계공업, 전력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다른 공업부문의 로동계급도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공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농촌경리부문에서 특출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이른봄부터 매우 불리한 날씨가 계속된 조건에서도 전당, 전민, 전군이 떨쳐나서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례없는 대풍작을 이룩함으로써 850 만톤의 알곡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주체농법의 커다란 생활력의 뚜렷한 시위로 됩니다.

우리의 농업근로자들과 전체 인민들은 자연개조 5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20 만정보의 발판개를 완성하고 수리화체계를 더욱 완비함으로써 그 어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지난해에 과학, 교육,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건설분야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습니다.

우리의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 로동적위대원들과 붉은청년근위대원들, 사회안전원들은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켰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온 나라가 드높은 정치적열의로 들끓는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서 공화국의 새 정부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혁명정권은 더욱 강화되고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불패의것으로 다져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며 앞으로 보다 큰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됩니다.

참으로 지난해는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과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된 뜻깊은 해였습니다. 나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지난해를 기쁜 마음으로 돌이켜보면서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영웅한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인테리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발전하였으며 우리의 혁명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인민의 정의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사회주의나라들과 뿔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친선적인 나라 인민들과 벗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오늘 새해를 맞이한 우리 인민앞에는 제 2 차 7 개년계획을 수행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제 2 차 7 개년계획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입니다. 새 전망계획이 수행되면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는 현대적과학기술에 토대하여 더욱 강화발전될것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인민의 전진운동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것입니다.

새해 1978 년은 제 2 차 7 개년계획을 수행하는 첫해이며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올해의 전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잘해야 좋은 결과를 얻는법입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올해의 과업을 승리

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일대 양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제 2 차 7 개년계획수행에서 주타격방향은 채취공업입니다. 채취공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워야 연료, 동력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수 있고 가공공업에 원료도 원만히 대줄수 있으며 외화원천도 적극 늘일수 있습니다. 결국 제 2 차 7 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열쇠는 채취공업을 확고히 앞세우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채취공업에 화력을 집중하여 탄광, 광산들을 더욱 개건확장하고 그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제 2 차 7 개년계획수행에서 채취공업의 선차성을 보장하여야 하겠습니까.

수송사업에서도 계속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운수부문에서는 우리 당이 내세운 집중수송, 련대수송, 짐함수송의 3 대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더욱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까. 철길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차량을 대대적으로 늘여 철도에 의한 대량수송, 먼거리수송을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 철도수송과 함께 자동차수송과 배수송을 강화하며 철도와 자동차, 배의 련대수송을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과 건설장들에 물자와 설비들을 제때에 날라주어야 하겠습니까.

기계공업은 공업의 심장이며 기술적진보의 기초입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일을 잘하여야 채취공업과 운수도 빨리 발전시킬수 있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일을 성과적으로 해나갈수 있습니다. 올해에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새로 건설되는 공장, 기업소의 대상설비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하며 대형공작기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공작기계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채취공업발전을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대형자동차, 대형굴착기, 대형불도젤, 압축기를 비롯한 기계설비들과 수송사업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전기기관차, 내연기관차, 여러가지 차량들과 큰 짐배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새해에 기계공업부문의 전체 노동자, 기술자들이 당의 높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올해에 다른 공업부문에서도 다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모든 공업부문에서 이미 건설하여놓은 공장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노동생산능률을 더욱 높임으로써 올해에 자기앞에 맡겨진 과제를 반드시 넘쳐수행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올해에도 농업전선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농사를 잘 지어 알곡을 많이 생산하여야 공업도 빨리 발전시킬수 있고 인민생활도 더 높일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다른 문제들도 다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식량사정이 날로 긴장해지는 조건에서 농사를 잘하는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섭니다. 농업부문에서는 미리부터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갖추었다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올해에 또다시 대풍작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까.

한랭전선의 영향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가물피해를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한방울의 물도 헛되이 흘러보내지 말고 다 잡아 저축하며 우물을 대대적으로 파고 더 많은 물원천을 확보하여 발판개면적을 계속 늘여야 하겠습니까.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며 바로 3대혁명을 잘하는 여기에 모든 사업에서의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제 2 차 7 개년계획은 매우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며 이것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긴장된 투쟁을 벌릴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제 2 차 7 개년계획을 자체의 힘과 자체의 기술, 자체의 자원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며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증산절약 투쟁을 강화하여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있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인민정권을 강화할데 대한 중요한 과업을 내세웠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총복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임으로써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열의는 매우 높으며 나라의 정세도 대단히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인민들의 높은 혁명적열의를 어떻게 조직동원하며 지도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당,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에서 모든 일을 조직하고 집행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내고 야마는 혁명적기풍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모든 지도일군들은 관료주의를 철저히 반대하고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듣고 그들의 리익에 맞게 사업하여야 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워 인민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지혜를 적극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혁명의 길우에 있는것만큼 절대로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여서는 안됩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안일과 해이를 배격하고 언제어디서나 혁명적으로 일하고 배우고 생활하며 계속전진, 계속 혁신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투쟁목표는 명백하며 전망은 휘황찬란합니다.

모두다 공산주의기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제 2 차 7 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갑시다.

# 김일성

##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12월 15일)

대의원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6 기 대의원선거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3대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며 전체 인민이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들끓는 환경속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모든 공민들은 인민정권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모두다 선거에 참가하여 100% 찬성투표함으로써 공화국정부에 대한 확고부동한 지지를 뚜렷이 표시하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불패의 통일과 단결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시위하였습니다.

나는 전체 인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하여 공화국정부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두터운 신뢰를 표시하였으며 새로 선거된 최고인민회의대의원동지들이 전체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우리에게 공화국의 새 정부를 구성하고 국가사업을 계속 이끌어나갈데 대한 영예롭고 무거운 책임을 맡겨준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인민의 신임을 받으며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보다 더 영예롭고 보람있는 일은 없습니다. 새로 조직된 공화국정부는 인민대중의 두터운 신임과 높은 기대에 맞게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에 충실할것이며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융성발전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것입니다.

최고인민회의 제 5 기 대의원선거가 있는 다음 지난 5년동안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습니다.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령도밑에 전체 인민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내어 투쟁한 결과 조선로동당 제 5 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한층 심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졌으며 공화국의 위력이 모든 분야에 걸쳐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승리자의 높은 긍지와 휘황한 앞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전진운동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제 2 차 7 개년계획의 새로운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임으로써 우리앞에 나선 영예로운 혁명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할것입니다.



# 1.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은 근로인민대중이다

동지들!

근로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입니다. 인류역사는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의 역사이며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역사가 발전하고 사회적운동이 진행됩니다.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것도 인민대중이며 물질적부를 창조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것도 인민대중입니다. 인민대중을 떠난 사회란 있을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역할이 없이는 역사가 발전할수 없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은 역사무대에 등장한 때로부터 역사의 주체로서 모든 사회적운동의 중심에 서있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그의 지위와 역할이 같은것은 아닙니다. 사회가 계급으로 갈라지고 국가가 생겨난 다음부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은 국가주권을 쥐였는가 못쥐였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국가주권은 정치적지배권이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입니다. 착취사회에서는 국가주권을 쥔 착취계급만이 지배권을 가지고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국가주권을 쥐지 못한 근로인민대중은 아무런 자유와 권리도 못가지고 오직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됩니다. 근로인민대중은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쥔 사회주의사회에서 비로소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가 완전히 보장되고 그들의 창조적위력이 남김없이 발양되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합니다.

혁명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며 자주성은 국가주권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사람들의 자주적권리는 국가주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며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정권의 주인으로 되어야 합니다.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손에 주권을 쥐고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어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혁명에서 주권에 관한 문제가 기본문제로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위하여, 자기의 주권을 위하여 간고하고 줄기찬 투쟁을 벌였으며 인민정권을 세움으로써 주권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오랜 기간의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정권이 창립된것은 지금으로부터 30 년전이지만 그 역사적뿌리는 훨씬 오래전에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지도밑에 우리 인민이 벌린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은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인 동시에 근로인민의 주권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혁명의 임무와 우리 나라의 사회계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동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인민정권을 세울데 대한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로선에 따라 유격근거지들에서 독창적인 정권형태인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고 운영함으로써 인민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이 해방된 다음 안팎의 원썬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시고 짧은 기간에 주권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습니다. 해방후 인민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에 의하여 창립

된 인민정권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내놓은 인민정권건설로선의 빛나는 구현이었으며 유격근거지들에 조직되었던 인민혁명정부의 직접적인 계승이었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조선혁명의 요구와 근로인민대중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 자신이 선택하고 우리 자신이 만들고 우리 자신이 운영하는 주체적인 혁명정권입니다.

인민정권이 창립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손에 주권을 틀어쥐고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었으며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민정권은 창립된 첫날부터 근로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왔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앞에 선차적으로 나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진적인 새 사회제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인민정권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투쟁강령으로 내세우고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식민지반봉건적인 낡은 사회제도를 청산하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였습니다. 인민정권은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데 뒤이어 곧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전후 짧은 기간에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하고 공화국복반부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세워놓았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백방으로 옹호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경제건설은 인민정권이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력갱생의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주체적인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빛나게 관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경제적라후성을 완전히 청산하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것이 파괴된 재더미위에 강력한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를 훌륭히 일떠세웠으며 우리 나라를 현대적인 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는 우리 공화국의 정치적자주성과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확고히 담보하는 튼튼한 물질적기초로 되고있습니다.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처음부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도발 책동이 계속되는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민정권은 우리 당의 혁명적자위로선을 관철하여 제때에 혁명무력을 창건하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방위체제를 튼튼히 세웠으며 그에 의거하여 조국보위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인민정권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을 때 조국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 인민들의 투쟁의 기치가 되어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들을 영웅적위훈으로 불러일으킴으로써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보장하였으며 전후 적들의 끊임없는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왔습니다.

창립후 오늘까지 우리의 인민정권은 줄기찬 투쟁과 영광에 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조국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인민정권은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과정에 전투력있고 생활력있는 불패의 혁명정권으로 강화발전되었습니다. 혁명과 건설이 발전하는데 따라 인민정권의 정치경제적기초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그 기능과 역할이

비상히 높아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민정권은 가장 혁명적이며 자주적인 사회주의 정권으로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근로인민대중은 인민정권이 있음으로 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고있습니다. 인민정권아래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이 완전히 보장되고있으며 그들의 창발성이 높이 발양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인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조국의 통성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데 따라 인민정권의 위력은 더욱 강화되고 혁명과 건설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투쟁하는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커다란 우월성이 있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습니다.

인민정권의 창건과 함께 인간의 참다운 존엄과 권리를 찾았으며 인민정권의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온 우리 인민들은 자기들의 산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인민정권이 얼마나 우월하며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심장으로 느끼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인민정권을 진심으로 깊이 신뢰하고 인민정권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인민정권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역세계 싸워나아갈 굳은 결의에 가득차있습니다.

## 2.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동지들!

우리의 인민정권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주권은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으며 그들은 인민정권기관을 통하여 자기의 주권을 행사합니다.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모두 인민들에 의하여 직접 선거되며 근로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인민정권기관은 결코 인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기관으로 될수 없으며 마땅히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총복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인민정권의 영예로운 사명입니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는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삼아야 하며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인민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합니다.

인민정권이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국가활동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입니다. 국가활동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원만히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일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한마디로 말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입니다. 다시말하면 국가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할뿐아니라 어떤 사회에서나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가 곧 국가의 정책으로 되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정치만이 참다운 민주주의로 됩니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떠나서 소수 특권계층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치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민주주의로 될수 없습니다. 세상에 참다운 민주주의는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 사회주의적민주주의입니다.

착취계급의 의사와 리해관계에 따라 국가의 모든 정책이 좌우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결코 진정한 민주주의가 있을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사회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이른바 《민주주의》, 부르조아민주주의는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이며 따라서 그것은 본래의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절대로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있을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말로는 《만민의 평등》이요, 《개성의 자유》요 하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대지만 그것은 실지에 있어서는 전혀 실현될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국가 모든 권력과 생산수단이 소수 자본가들의 손안에 들어있고 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억만장자들과 가난한 근로인민들사이에 어떻게 평등이 있을수 있으며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근로인민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을수 있겠습니까.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이며 그들이 들고나오는 《평등》이니, 《자유》니 하는것들은 모두 근로인민대중을 기만하며 부르조아독재의 반동성과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적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오직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의 모든 정책이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실시되고있으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이 가장 존엄있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습니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에 적극 참가하고있으며 성별과 직업,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같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언론, 출판, 집회, 시위를 비롯한 온갖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노동과 휴식의 권리를 보장받고있으며 누구나 다 자기의 희망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안정된 일자리에서 마음껏 일하며 사회와 자신을 위한 보람찬 노동생활에서 힘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전체 인민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살수 있는 온갖 물질적조건을 보장해주고있으며 전반적인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있습니다. 국가의 이러한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전체 인민들이 의식주에 대한 걱정과 교육에 대한 걱정, 병치료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다같이 고르게 잘살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이 누리고있는 모든 사회정치적권리와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은 사회주의헌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장되고있을뿐아니라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습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다 평등한 사회성원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긴밀히 협조하면서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인민들은 실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적민주주의만이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며 넉넉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진정한 민주주의라는것을 깊이 확신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야 하며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더욱 원만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인민대중을 인민정권사업에 널리 참가시키며 국가정치생활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주권의 주인인것만큼 인민정권사업에 참가할 몇몇한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또한 인민정권사업에 참가하는것은 그들의 중요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우수한 대표들로 각급 주권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인민정권기관들의 사업체제와 사업방법을 더욱 개선하여 광범한 인민들이 인민정권사업에 널리 참가할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근로인민대중을 끊임없이 교양하고 각성시켜 그들이 모두다 국가주권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열의를 가지고 국가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민정권의 모든 정책과 활동이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인민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것으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인민정권의 정치가 철저히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치로, 근로인민대중자신의 정치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광범한 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우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신의 투쟁으로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옹호하며 자기의 요구와 리상을 실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잘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잘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기 위한 담보입니다.

우리는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고 사회주의경제체제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공업과 농촌경제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빨리 높이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을 보다 넉넉하게 하며 근로자들사이의 생활수준과 노동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보다 완전한 사회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문화건설을 다그쳐 우리 나라에 이미 마련된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보건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여러가지 새로운 인민적인 문화시책들을 실시함으로써 전체 인민들에게 보다 원만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어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나라살림살이와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 경제문화건설에 대한 지도와 보장 사업을 개선강화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며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온갖 적대행위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근로인민의 계급적원썹들에 대한 독재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그것은 침예한 계급투쟁을 동반합니다. 세상에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생겨난 때로부터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 전복된 계급적원썹들은 언제나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헐뜯고 파괴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였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오늘 미제의 우두머리들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에 대한 비방증상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반공소동에 그 어느때보다도 열을 올리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인권옹호》를 부르짖으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공격하는것은 도적이 맬을 드는것과 같은 철면피하고 가소로운 행위입니다.

현시기 지구상에서 사회적불평등이 가장 심하고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인권유린이 가장 혹독한 나라는 바로 서방제국주의나라들이며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피뢰국가들입니다. 민주주의가 없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에게 인권이 있을수 없다는것은 너무나 명백한 리치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인간의 존엄과 정치적권리를 전혀 못가지며 지어는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빼앗기고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 《인권》이 있다면 한줌도 못되는 특권계층이 근로대중의 피땀을 짜내어 부귀영화를 누리며 인민들을 억압하고 멸시할 권리가 있을따름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들어대는 사회주의나라들에서의 이른바 《인권탄압》에 대하여 말한다면 사회주의국가가 민주주의적질서를 유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려는 적대분자들과 불순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것은 민주주의의 원썹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옹호하는 《인권》은 인민들의 인권이 아니라 인민의 원썹들의 인권이며 그들이 바라는 《자유》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가 아니라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파괴활동의 자유입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당성을 숨기지 않는것처럼 민주주의의 계급성도 숨기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결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게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주고 소수의 계급적원썹들에 대하여서는 제재를 가하는것이 바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튼튼히 지키며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적대분자들과 불순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하여야 합니다. 특히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모략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며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제때에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안팎의 계급적원수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철저히 고수하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할 때 우리의 인민정권은 더욱 강화되고 인민들은 보다 행복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누리게 될것입니다.

### 3. 관료주의를 반대하자

동지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며 인민정권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관료주의를 반대하여야 합니다.

관료주의는 낡은 사회의 관리들이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반인민적통치방법입니다. 관료주의는 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대립되며 인민의 총복인 인민정권의 사업에서는 관료주의가 절대로 허용될수 없습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이 관료주의를 철저히 없애야 인민들의 리익을 적극 옹호할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습니다.

인민정권사업에서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문제는 정권기관이 권력기관이라는 사정과 관련하여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나옵니다. 인민정권기관은 프로레타리아독재기관이며 정권기관일군들은 국가권력을 가지고 사업합니다. 이런데로부터 혁명적세계관이 서지 못한 정권기관 일군들속에서 권력을 람용하여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며 관료주의를 부리는 현상이 나올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정권을 창립한 첫날부터 관료주의를 주요한 투쟁대상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반대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습니다. 공화국정부의 올바른 지도와 정권기관 일군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관료주의가 기본적으로 없어졌으나 아직 일군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있는 조건에서 관료주의가 나올 위험성은 의연히 남아있습니다. 만일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여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어느때든지 관료주의가 나올수 있습니다.

관료주의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어긋나는것을 내리먹이며 인민들의 리익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는데서 표현됩니다. 일군들의 주관적의도는 어떻든지 또 그것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든지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지 않는것을 내리먹이며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는것은 다 관료주의입니다.

낡은 사회의 유물인 관료주의는 인민정권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도록 저애하며 혁명과 건설에 커다란 해독을 끼칩니다.

관료주의의 해독성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마비시킨다는데 있습니다. 관료주의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하고 부당한것을 망탕 내리먹임으로써 인민들의 자주적권리를 침해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떨어뜨립니다.

또한 관료주의는 인민정권과 근로대중을 리탈시키는 엄중한 해독적작용을 합니다. 관료주의자들은 대중에게 함부로 명령하고 호령하며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인민정권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우는데 지장을 줍니다.

모든 사업이 조직적으로 진행되며 모든 부문이 유기적으로 련결되어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비록 개별적일군이 관료주의를 부려도 여러 부문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 인민정권기관 사업에서 관료주의를 철저히 없애야 하겠습니다.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하여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모든 정권기관 일군들은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여기고 이 투쟁에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적극 참가하여야 하겠습니까.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이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인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그들의 리익에 맞게 모든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 주관주의적으로 사업하는것은 언제나 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에 배치됩니다. 일군들이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고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잘 알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는 인민정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최고원칙입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인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그들의 요구에 맞게 모든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어떤 결정을 채택하거나 지시를 내릴 때 반드시 아래에 내려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군중과 충분히 의논하여야 하며 언제나 인민들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이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리익에 맞게 사업하려면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청산리방법은 주체적인 군중관점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입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절대로 인민우에 올라앉아 명령하고 호령하는 관료가 되어도 안되며 군중과 동떨어져 사는 특수한 존재가 되어도 안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언제나 인민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살면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를 제때에 해결해주며 인민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을 가르쳐주며 인민들을 교양하여 혁명과업수행으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이 군중과 한덩어리가 되어 한마음한뜻으로 살며 일할 때 인민들의 요구를 더 잘 알고 그들을 위하여 더 충실히 복무하게 될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를 옳바로 지도하고 관리하는것은 인민정권기관들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경제를 지도하고 관리하는데서 광범한 군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집체적지도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는 고도로 사회화된 대규모경제이며 사회주의경제의 주인은 다름아닌 인민대중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지도에서 집체적지도원칙을 관철하여 광범한 군중을 경제관리에 적극 참가시켜야 사회주의경제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습니다.

경제 지도와 관리에서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집체적지도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관리에 생산자대중을 널리 참가시키며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집체적지혜와 창조적열의를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속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인민들자신이 만든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전체 인민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있습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모든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이 사회주의법을 잘 지킬 때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관료주의가 없어지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더욱 원만히 보장될것입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속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이 국가의 법질



서를 자각적으로 지키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인민의 참된 행복이 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기초는 법규범과 규정입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여러 부문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만들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끊임없이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법을 존중히 여기며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는것은 모든 공민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법과 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며 국가의 법질서와 사회주의생활규범을 지키는데서 군중의 모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중요한 임무는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이 권력을 람용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통제하며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것입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속에서 준법교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널리 해설하여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의 준법의식을 높임으로써 그들이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법을 위반하는 현상들과 강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모든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이 국가의 법질서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것을 일상적으로 감독하여야 하며 법규를 어기고 판료주의를 부리며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일군에 대하여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격한 법적제재를 가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법적으로 판료주의를 제지하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보위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의원동지들!

우리는 다음해부터 제 2 차 7 개년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 2 차 7 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입니다.

우리는 제 2 차 7 개년계획말에 가서 한해에 560 억~600 억키로와트시의 전력, 7,000 만~8,000 만톤의 석탄, 740 만~800 만톤의 강철, 100 만톤의 유색금속, 500 만톤의 기계가공품, 500 만톤의 화학비료, 1,200 만~1,300 만톤의 세멘트, 350 만톤의 수산물, 1,000 만톤의 알곡을 생산하고 10 만정보의 간척지를 개간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지금보다 생산을 두배이상 높이게 될것입니다.

제 2 차 7 개년계획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입니다.

새 전망계획이 수행되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 될것이며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행복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누리게 될것입니다.

제 2 차 7 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온 나라와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야 하며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하여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제 2 차 7 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전략적방침이며 3 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제 2 차 7 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습니다. 각급 정권기관들과 전체 인민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

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는 대단히 위력하며 그 생산잠재력은 매우 큼니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지금보다 생산을 훨씬 더 높일수 있고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더욱 완비하고 현대적기술로 장비하여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 2 차 7 개년계획기간에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제 2 차 7 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 이것이 제 2 차 7 개년계획기간에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혁명적구호입니다.

전체 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제 2 차 7 개년계획을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를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시위하여야 할것입니다.

동지들! 공화국정권은 우리 인민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의 진정한 옹호자이며 조국의 독립과 번영을 위한 혁명적기치입니다. 인민정권의 강화발전과 더불어 우리 인민은 더욱 존엄있고 행복한 인민으로 될것이며 우리 조국은 끝없이 융성발전할것입니다.

전체 인민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신이 선거한 인민정권을 더욱 신뢰하고 인민정권의 제반 시책들을 철저히 관철하며 인민정권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령도밑에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정당한 위업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은 필승불패입니다.

모두다 공산주의기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새해의 노래

티없이 깨끗한 흰눈이  
푸른 소나무에 조용히 내리고  
은빛지붕우에 내려쌓이며  
아름다운 조국강산에  
새해아침이 밝아옵니다.

일찌기 어버이수령님  
만경대를 떠나시던 그 아침에는  
저 눈송이 겨레의 두볼을 적시며  
조선의 눈물이 되어 강토에 떨어지더니

오늘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송이송이 행복이 되어  
해빛처럼 눈이 시도록  
락원의 강산에 쏟아집니다

아 어버이수령님을  
국가주석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밝아온 이 영광의 아침에는  
저 눈송이 꽃보라 꽃보라되어  
우리의 마음인양 온 누리에 펄펄 날립니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언제나 그 따사로운 해빛속에 사는  
가장 행복한 우리 인민들이  
폭풍을 뚫고나가는 남녘의 형제들과  
먼 이역땅의 우리 동포들이  
주체의 태양을 심장에 안고  
자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며  
삼가 새해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해가 뜨지 않고  
하늘에 별도 뜨지 않던 캄캄한 세월

이 나라의 마지막끝에서  
조선아 조선아 부르시던 그 비장한 음성  
천리장강의 얼음장도 갈라터지던 그날

5천년의 혈통이 끊어진  
조선의 운명을 한어깨에 메시고  
망국노의 설움에 우는  
2천만겨레를 한품에 안으시고  
그날에 수령님 딛고계시던 그 눈우에  
무겁게 무겁게 패워진 자욱은  
천길로 깊었던가  
만길로 깊었던가

조국의 운명을 건지시려 몇만리  
인민의 새세상을 여시려 또 몇십만리  
가도가도 끝이 없는  
20년대의 그 해저무는 지평선을 걸으실 때  
이국의 바람소리는 얼마나 처량하게 울부짖었고  
넘어도 넘어도 끝이 없는  
30년대의 그 언덕우에  
눈을 깔고앉아 《사향가》를 부르시던 그 밤  
두고가신 만경대의 초가집은  
어느 별밑에 아득하였던가

아, 갈숲이 설레이는 소사하의 초가집  
앉으시는 어머님을 그 지붕밑에 남겨두시고  
다시는 만나실 그날을 기약할수 없으시여  
몇번이고 몇번이고 되돌아서시던  
그토록 가슴이 아프고 저리신  
그 무거운 걸음을 기어이 떼신것도  
나라를 찾고  
우리 인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수령님!

열네살 너무도 어리신 나이부터  
세상 가장 큰 고통을 다 겪으시며  
세상 가장 큰 슬픔을 다 이기시며  
수령님 걸으신 그 자옥자옥에서  
조선이 살아나고  
겨레가 살아나고  
우리 당이 태어났습니다

수령님 헤쳐오신  
풍찬로숙의 그 20성상이 있었기에  
백두산을 내리신 그 걸음으로  
시련의 언덕을 넘고넘으신  
그 영광의 30성상이 있었기에

해와 별이 빛나는  
조선의 하늘이 열리고  
가도가도 끝없는 락원의 강산에  
인민의 웃음도 끝이 없거니

아, 해가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인민의 생각  
어제는 다 깨닫지 못하던  
아버이 그 사랑을 오늘에 다시 느끼며  
이 세상 기쁨을 다 주신  
그 은혜에 목메이는 인민의 간절한 마음이어

엄동설한에 눈을 맞으시며  
언땅우에 온기를 부어주시고  
피약별이 내려쬐이는 무더운 여름날엔  
한손으로 햇빛을 가리우시며  
천길땅속의 생명수를 찾아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벼바다, 강냉이바다를 펼치시여  
한랭전선을 모르는 조선이 지구우에 있다는것을  
다시 한번 온 세계에 선포하신 우리 수령님

꽃바람이 훈훈한 화창한 봄날

아버지원수님 안겨주신  
사랑의 옷을 곱게 차려입고  
기뻐서 기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아이들의 꽃밭속으로 걸어가신 수령님

옷맵시도 다정하게 보아주시고  
책가방도 열어보시고 꽃무늬신발도 벗겨보시며  
기쁘시여 수령님께서는 자신도 못내 기쁘시여  
아이들의 손목을 이끌어 사진도 찍어주셨거니  
이렇게 온 강산을 꽃바다로  
행복의 바다로 만들어주신 우리 수령님

아, 설날아침 명절옷을 달라고 졸라대는  
철없는 어린것에게 꾸지람을 주고  
돌아앉아 치마폭에 눈물을 씻던 이 나라  
어머니들과  
그날에 어머니를 울리였던 그 아이들이  
오늘은 할머니가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사랑의 옷을 두손에 소중히 받아안고  
목이 메여 아버지 그 사랑에 목이 메여  
수령님 초상화를 우러러 큰절을 드릴 때  
하늘에 떠가던 구름도 흐느끼며  
이 땅에 산천초목을 적시고야말았습니다

수령님 계시여  
오늘의 기쁨이 있고  
우리 아이들의 저 맑은 웃음이 있고  
우리의 강산은 저리도 밝고 아름다운것 아닙니까

이렇게 온 하루를  
이렇게 온 한해를  
인민에게 안겨주신 하나의 기쁨으로부터  
지구우에서 벌어지는 천만가지 일들을  
다 헤아리시고 다 풀어나가시며  
승리의 한길로 혁명을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 계시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오늘은 국경을 넘고 또 넘어  
세계의 어느곳, 어느 하늘가에 가서  
우리가 주체의 나라 조선사람이며  
우리가 **김일성**동지의 당의 당원임을  
그처럼 긍지높이 자랑합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청춘을 주시고  
가장 고귀한 인간의 노래를 주시고  
세상사람들이 그처럼 우러러 바라보는  
주체의 조국을 세워주시고  
아, 수령님께서는 세기의 상상봉에 거연히 서시어  
위대한 주체의 해발로  
모든 대륙과 대양들에 아침해빛을 주시며  
인류력사에 영광찬란한 주체시대를  
펼쳐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신  
그 영광, 그 감격을 안고 밝아온 이 아침  
최고인민회의 높은 연단에서  
수령님 밝혀주신 그 휘황한 길을 따라  
총진군의 복소리 강산에 울리며  
우리는 장엄하게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새 7개년의 높은 봉우리!  
사람들의 심장을 한없이 격동시키며

아슬히 솟아오른 영광의 봉우리  
그 봉우리를 딛고 올라선  
그날의 우리 조국은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청춘의 나라로 될 것이며  
그날의 우리 인민은  
참으로 얼마나 보람찬 행복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그 봉우리 아무리 높다 하여도  
아무리 가는 길 험난하다 하여도  
3대혁명의 기치를 펴며 날리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온 세상에 떨치며  
우리는 기어이 그 봉우리에 올라서서  
위대한 수령님께 다시 충성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 백번을 다시 태어나도  
아버이수령님 한품에 안기고  
천번을 다시 태어나도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간절한 마음

언제나 그 언제나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우리 인민들이  
통일된 강산에 수령님 높이 모시고  
천만년 살아갈 우리 인민들이  
조선의 행복이시며  
만민의 영광이시며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의 태양이신  
아버이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 수령님께 새해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복의 노래  
흘러넘치는  
은혜로운 조국강산  
희망으로 설레이는 가슴에  
환희로운 빛발을 뿌리며  
새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산은 변하여도  
우러르는 마음 변함없이  
아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과 행복에  
목메이는 우리 인민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흐를수록  
수령님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음을  
가슴뜨겁게 느끼며 사는 우리 인민  
가장 숭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아버이수령님을 우러러  
삼가 옷깃을 여밉니다

이 나라 남녘땅  
바다멀리 이역땅에서  
민족의 태양을 우러러 싸우는 형제들과 함께  
주체조국의 하늘밑에서 《평양선언》을 높이  
올린 혁명하는 인민들과 함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새해의 첫인사를 드립니다!

뜻깊은 년륜을 력사에 새기며  
그리도 보람찼던 한해를 보내고  
조국이 또다시 큰 나래를 펼칠  
휘황한 새 7개년의 웅대한 설계도를 안고  
홍분으로 설레이는 이 아침

번영하는 우리 조국  
높이도 올라선 락원의 언덕우에서

넘고 헤쳐온 혁명의 길을 더듬어보는  
우리의 가슴은 뜨겁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의 설음이  
강산에 사무치던 그 겨울  
피바다속에 잠긴 조국을 구원하시려  
혁명의 큰뜻을 품으시고  
수령님께서 해방의 천리길에 오르셨던  
그날의 그 아침

찬바람 불던  
한적한 평양의 역두  
류랑민의 눈물이  
두줄기 궤도우에 얼어붙던 그날에  
가난하고 헐벗은 2천만 인민이  
수령님께 드린것이란 무엇이였습니까

가슴아픈 거래의 몸부림인양  
기적소리 처량하게 울리며  
떠나가는 열차를 따라서며  
한 소년이 울면서 올린 돈 3원뿐이였습니다

력사의 그날로부터 반세기  
고난과 시련의 해와 달이 이어지고  
영광의 년대들이 바뀌며  
멀리도 흘러온 세월

백두의 밀림속에서  
혁명의 첫걸음을 익혀주신  
어제날 전령병들의 머리우에도  
어느덧 흰서리가 내리고  
전쟁의 불길속에서 안아키우신 나어린 고아들도  
오늘은 어엿한 일군으로 자라났습니다

너무도 헐벗고 수모받던  
조국과 인민을 안으시고  
혁명의 초행길을 헤치시여  
오늘의 락원으로 이끌어오신 수령님

겪으신 로고는 얼마였습니까

혁명의 한길로 인민들을 이끄시던  
그 어렵던 나날  
오가자의 추녀났은 농가집에서  
목침을 베시고 갓김치를 드시며  
지새우신 겨울밤은 얼마나 길었고  
해방된 조국을 안겨주시려  
걸음걸음 고난과 시련을 헤치셔야 했던  
그 피어린 항일의 설령에  
광야의 설한풍은 얼마나 모질었습니까

가렬한 전쟁의 준엄한 그날엔  
최전선의 전호가에서  
전사들과 함께 찬서리를 맞으시며  
전쟁의 승리를 마련해주셨고

전후의 어려웠던 그날엔  
산촌의 발벗은 한 아이를 보시고는  
가슴아프시여 잠 못 이루시고  
강선의 백양나무밑에서  
로동자들과 허물없이 나라일을 의논하시며  
채더미우에서 조국을 안아 세워주신 수령님

내리는 눈비를 다 맞으시며  
걸으신 곳은 길  
넘으신 험한 령은 몇천리시였고  
그 길우에 겪으신 마음고생인들  
얼마나 크시었습니까

아 위대한 사랑으로 뜨거운 로고의 길  
인민에게 조국을 찾아주시고  
행복한 새 생활을 안겨주시여  
우리의 천만소원을 다 풀어주신 오늘에도  
그 무엇인가 더 주고싶으시여 마음 쓰시는  
인민의 아버지 우리 수령님!

…그 봄날을 잊지 못합니다  
수령님 보내주신 사랑의 새옷 입은  
학생들과 귀여운 어린이들로  
꽃바다를 이룬

온 나라의 거리와 마을

생각 많은 인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날엔  
강반석어머님의 사랑어린 돈 20원으로  
혈벗은 마안산아이들을 입히시고  
오늘은 온 나라 아이들을 입히신 그 사랑  
이날까지 그 무엇 하나 올리지 못하고  
받아안기만 하는 그 사랑에 목메여 흐느끼며

이날만은 이날만은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고 또 축원했건만  
아 수령님  
그 아침에 수령님 계신곳은  
그 어디시었습니까

새벽안개 자욱히 서린 들관  
내리는 봄비를 맞으시며  
비에 젖은 발이랑에 자욱을 남기시며  
수령님께서서는  
개천땅의 농장벌을 걷고계셨습니다

너무도 뜻밖에  
비내리는 들관에서  
수령님을 뵈옵는 관리위원장  
목이 메여 그만 목이 메여  
《수령님 !  
오늘은 온 나라가 쉬고  
우리 농장도 쉬는데 …》

더 잊지 못하는  
간절한 그 소원을 헤아리시며  
오히려 너그러이 웃으시는 수령님  
나는 동무들과 함께 있는것이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봄날의 가물이 그리도 걱정되시여  
손수 발이랑을 헤쳐보실 때

온 조국땅이

아버이 그 사랑에 젖고  
그 사랑에 뜨거운  
인민의 이 가슴

아 수령님이시여  
그 언제면  
천만시름 다 잊으시고  
단 하루라도 편히 쉬어주시겠습니까

외국의 손님들도  
위대한 수령님 뵈옵고  
인민을 위하여  
이렇듯 큰 일을 해놓으신 수령님께  
이제는 마음놓으시고 편히 쉬실것을  
간곡히 아뢰이건만  
그때마다 수령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민의 총복으로  
인민과 함께 일생을 바치려 합니다.  
인민의 총복이 되는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아 위대한 아버지사랑  
력사밖에 버림받던 인민을  
이 세상 한복판에 세워주시고  
철쇄에 묶이웠던 손에  
자유를 주시고  
권리를 주시고  
창조의 힘을 주시고  
인간의 존엄을 안겨주신 그 사랑

그 사랑  
이 땅에 락원으로 꽃피고  
그 사랑  
이 땅에 교육테제로 빛을 뿌리고  
그 사랑  
이 땅에 지하수혁명의 샘물로 솟구쳐  
만풍년의 황금날가리로 높이 솟았거니  
그것은 인류력사가 알지 못한  
오직 우리 인민만이 받아안은  
위대한 태양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펼쳐진  
새 7개년의 휘황한 설계도를 안고  
지나온 봉우리들을 자랑높이 굽어보며  
조국은 진군의 북소리 높이 울립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대를 이어 충성다할  
오직 하나의 의지와 신념을 안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의 진군길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을 혁명의 구호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그 기백으로  
3대혁명의 기치높이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새 7개년의 모든 봉우리위에  
기어이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겠습니다!

아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우리가 달려가는 위대한 주체의 행군길  
이 길위에 통일의 새날은 열리고  
공산주의 아침노을 비껴오리니

막을수 없는 력사의 흐름을 안고  
자주의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는  
대륙의 초원과 사막들을 누비며  
뻗어가는 위대한 진리의 이 길  
이 력사의 길을 따라  
우리는 주체의 기치높이  
인류의 찬란한 리상봉을 향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것입니다!

혁명의 미래를 위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력사가 높이 모시고  
만민이 따르며 우러르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여  
혁명의 영원한 태양으로  
세기의 영광속에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옵니다!



# 잠 못드는 밤에

한원희

폭풍같은 환호속에 달이 저물고  
진정할길 없는 흥분속에 별이 돌아  
수도의 밤은 깊어가건만  
이대로 한밤을 다 지새우려는가  
끝없는 환희를 한껏 내뿜는듯  
거리마다엔 붉고 푸른 축등들  
행복을 속삭이는 불밝은 창문들

가슴가득 기쁨이 넘치고  
얼굴가득 웃음이 꽃피어  
차마 잠들수 없는 이 밤  
나는 수도의 거리를 거닌다  
감격에 젖어, 눈물에 젖어-

아,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국가주석으로 높이 추대한 이날  
온 우주의 별들이 여기에 다 모여온듯  
저 하늘에도 별무리  
이 가슴에도 별무리

왜 이리도 못견디게 가슴 들먹이는가  
왜 이리도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조국의 어제와 오늘에 대하여  
찬란한 미래와 행복에 대하여  
끝없는 이야기를 나누고싶은가

백두산 마루에 솟아오른 장군별을 우러러  
잠 못들던 우리 인민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받들어모시던  
그 영광에 이어  
그 감격에 이어  
흐르고 흐른 조국의 나날

정녕 이 밤엔 별도 많고 생각도 많아라  
전설같은 이야기속에 애타계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 모시고  
전설같은 세월속에 살아온 우리  
행복의 주인도 우리였고  
기쁨의 주인도 우리였어라

땅도 넓고 넓은 우리의 땅  
하늘도 맑고 푸른 우리의 하늘  
산도 우리 위해 높이 솟아있고  
강도 우리 위해 굽이쳐 흘렀어라

아, 어려운 날에도  
위대한 수령님 계시여 마음 억세졌어라  
기쁜 날에도  
위대한 수령님 모시여 행복했어라!

수령님 품에 운명의 모든것 맡기고  
수령님을 영원히 믿고 따르며  
조국을 건설했고 아름다운 리상을 꽃피우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나니

인민의 념원은 이리도 간절해  
충성의 맹세는 이리도 뜨거워  
우러러 높이 추대되신  
위대한 수령님  
또다시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펼치셨거니-

아, 깊어가는 이 밤  
흐르는 대동강물은  
이 땅의 다함없는 감사의 눈물인가  
머리우에 비껴간 은하강은  
하늘의 뜨거운 눈물의 흐름인가

고마움에 목메이는 땅과 함께  
고마움에 목메이는 하늘과 함께  
우리 언제면 그 은혜 다 갚으랴  
자옥자옥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흘리며  
내 잠 못들고 거리를 거니노니

찬란한 조선의 미래여  
공산주의 큰문을 두드리라  
끝없는 조선의 영광이여  
세기와 세기에 나래치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천년을 살리라!  
만년을 살리라!

#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혁명문학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길에서 빛나는 위훈을 쌓아올린 뜻깊은 해, 1977년이 가고 보다 큰 전진과 승리로 빛날 영광의 새해 1978년의 새아침이 밝아왔다.

세기에 빛날 뜻깊은 력사적사변들로 가득찬 지난 한해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우리 작가들은 우리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가슴깊이 되새기면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뜨거운 충성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수령님께 새해의 인사를 드리며 수령님께 서 부디 만년장수하실것을 삼가 축원하고있다.

밝아온 새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맞는 뜻깊은 해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제 2 차 7 개년계획수행의 첫해로 된다.

지금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최고인민회의 제 6 기 제 1 차회의 연설과 신년사를 받아안고 북받쳐오르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강령적인 연설에서 우리 인민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거창한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심오히 분석총화하시고 우리앞에 나서는 보람찬 전투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연설은 우리 조국청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빛나는 승리와 성과에 대한 자랑스러운 기록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제 2 차 7 개년계획의 휘황한 전망을 밝혀주는 설계도이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투적기치이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웅대한 강령과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하여 나아갈 불같은 결의와 승리의 신심에 차넘치고있다.

\*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지난해는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과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된 뜻깊은 해였습니다.》**

지난해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생활에서 경사스러운 사변들과 빛나는 승리로 아로새겨진 참으로 뜻깊은 해였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온 세계에 시위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다시한번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특히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 6 기 제 1 차회의에서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국가주석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것은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절대적인 신뢰의 뚜렷한 표시였으며 수령님의 령도를 받들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영원히 싸워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결의의 표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국가주석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게 된것은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살며 싸워나가려는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며 자랑이며 행복이다.

지난해에 평양에서 진보적인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되였던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는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정당성, 그 불패의 견인력과 생활력을 온 세계에 시위한 력사적인 사변으로 되었다.

이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그것을 따라배우는것을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추세로,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지향으로 되고있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정치사상분야에서만뿐만아니라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온갖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면서 완충의 해의 경제과업수행에서 자랑찬 승리를 거두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들은 6 개년계획수행과정에서 일부 경제부문들에 일시적으로 조성되였던 긴장성을 완전히 풀고 완충의 해의 과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제 2 차 7 개년계획수행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하였다.

속도전의 북소리 온 강산에 울리며 힘있게 진행되였던 《수송혁명 200 일전투》의 승리로 하여 수송의 긴장성이 풀리였으며 《사회주의애국탄증산투쟁》의 불길 높은 석탄전선을 비롯한 채취공업도 가공공업에 앞서나가면서 원료, 연료에 대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주게 되었다.

기계공업, 전력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다른 모든 공업부문들에서도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특히 지난해에 농업전선에서 850 만톤의 알곡을 생산하는 특출한 성과를 이룩하고 자연개조 5 대방침관철에서 큰 성과를 거둔것은 더없는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이다. 세계를 휩쓴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농사를 망치고 농업위기, 식량

위기를 겪으며 아우성치고있는 때에 모든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우리 나라에서 또다시 대풍작을 이룩한것은 참으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커다란 승리가 아닐수 없다.

지난해에 문화혁명수행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사회주의문학예술이 더욱 활짝 꽃피어나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서 힘있는 실효투쟁의 무기로 되고있다.

지난해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이룩한 이와 같은 성과들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제 2 차 7 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확고한 기초가 마련되게 되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거둔 자랑찬 성과는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현명한 령도,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이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난해에도 불문불휴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우리 시대와 혁명발전이 새롭게 제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명철한 해답을 주시고 우리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난해에 발표하신 완성된 공산주의적교육강령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와 주체의 정권건설강령인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주체의 토지법전, 최고인민회의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하신 연설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우리 인민을 새로운 위대한 투쟁과 위훈으로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기치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이론, 실천적무기로 되었다. 뿐만아니라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그 위대성과 정당성, 독창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비상한 견인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았으며 날이 갈수록 세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기 위하여 전국의 수많은 도시들과 농촌을 찾으시여 우리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도록 따뜻하게 보살펴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그 바쁘신가운데서 지난해에도 우리 문학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난해에 혁명소설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문학을 모든 예술에 앞세워 발전시키며 문학창작을 적극 대중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는 뜨거운 배려를 베풀어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혁명문학은 새로운 발전의 길

에 들어서게 되었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옮긴 장편소설 《꽃파는 처녀》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그대로 옮긴 동화집 《나비와 수탉》이 나온것을 비롯하여 소설, 시, 아동문학의 각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그가운데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격조높이 노래한 서사시 《인민의 위대한 태양》, 장시 《설레이라 버바다, 강냉이바다여》와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헌시》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품모와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성심을 보여준 단편집 《태양을 따라》와 《뜨거운 은정》에 실린 작품들은 독자들의 인상에 남을수 있는 작품들이다.

또한 속도전의 불바람 세차게 일구며 사회주의대건설에 떨쳐나선 제철부문 연공들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중편소설 《불바람》과 력사주체의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제 1 부)도 독자들의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하는 좋은 작품이라 할수 있다.

지난해에 《해바라기의 노래》, 《온 세상에 만발한 김일성화》, 《우리모두 교육테제 받들어가자》, 《백두산의 만병초》, 《우리는 공장대학생》, 《대자연개조로 강산을 빛내자》를 비롯한 가사문학창작과 《창밖에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조국땅우에 밤은 깊어가도》, 《내 자라난 사랑의 품이여》를 비롯한 서정시문학창작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에 특히 영화문학 《이 세상 끝까지》가 나와 대중교양과 문학예술발전에서 큰 역할을 놀았다.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 6 기 제 1 차회의에서 하신 연설과 올해 신년사에서 펼쳐주신 강령적과업을 앞당겨수행하는데 이바지하는 혁명적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이룩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한 우리 인민앞에는 제 2 차 7 개년계획을 수행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제 2 차 7 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로 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입니다.**

우리는 제 2 차 7 개년계획말에 가서 한해에 560 억~600 억키로와트시의 전력, 7,000 만~8,000 만톤의 석탄, 740 만~800 만톤의 강철, 100 만톤의 유색금속, 500 만톤의 기계가공품, 500 만톤의 화학비료, 1,200 만~1,300 만톤의 세멘트, 350 만톤의 수산물, 1,000 만톤의 알곡을 생산하고 10 만

**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지금보다 생산을 두배이상 높이게 될것임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제 2 차 7 개년계획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이며 우리 인민을 끝없는 희망과 랑만으로 흥분케 하는 휘황찬란한 설계도이다. 이 새 전망계획이 수행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전진 운동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화의 온갖 분야에서 더욱 행복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번 신년사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새 7 개년계획의 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서 총진군운동을 벌이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일대 양양을 일으킬것을 호소하시였다.

오늘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제 2 차 7 개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는것보다 더 영예롭고 보람찬 일은 없다.

우리 문학이 전례없이 거창하고 웅대한 사회주의 경제건설강령인 제 2 차 7 개년계획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작품을 더욱 훌륭하게 창작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 6 기 제 1 차회의에서 제시하신 제 2 차 7 개년계획에 대한 법령에서 문화예술부문의 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예술부문에서는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 사회주의대건설의 벽한 현실을 생동하게 반영한 작품을 비롯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우리 작가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작품 창작에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새로운 일대 양양을 일으켜야 한다.

혁명문학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양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품창작의 주제사상을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옳바로 설정해야 한다.

작품창작에서 주제사상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제 1 차적인 의의를 가지는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주제선택에 큰 힘을 넣어야 할것이다.

우리는 새해에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감명깊게 형상한 혁명작품창작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참으로 아버지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깊이있고 격조높게 형상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첫째가는 요구이며 당성발현의 가장 중요한 표징으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배려와

은덕,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흠모와 충성심, 수령님과 인민대중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감명깊게 형상한 작품창작에 큰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특히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의 본보기인 항일혁명투사를 형상한 혁명전통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성과를 거두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작가들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에 이바지하는 작품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주제의 작품창작에도 응당한 힘을 기울여야 한다.

올해에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야 한다.

특히 제 2 차 7 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주타격방향인 채취공업을 비롯하여 올해에 당과 국가가 힘을 기울이고있는 부문인 수송, 기계공업, 농업전선에 대한 작품을 적극 창작해야 한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본질과 우월성이 충분히 구현되도록 인물형상을 창조해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근로인민대중에게 어떻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며 그들의 리익을 백방으로 옹호하여주는가를 생동하게 형상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지난날에는 아무런 자유와 권리도 못가지고 오직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되었으나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손에 주권을 틀어쥐고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여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근로인민대중의 형상을 시대적성격으로 훌륭히 창조해야 하며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충실히 듣고 그들의 리익에 맞게 사업하는 진정한 인민의 총북, 우리 시대 지도일군들의 형상도 진실하게 창조해야 한다.

사회주의대건설주제의 작품은 또한 사상개조와 기술개조, 문화개조의 과업을 동시에 통일적으로 밀고나아가는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본질을 형상적으로 훌륭히 구현해야 하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방침의 요구에 맞게 창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현실을 다만 기술개조의 측면에서만 일면적으로 보여주어서는 안되며 더구나 작품에서 취급되는 기술개조의 내용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것으로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에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며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아가는 영웅적성격을 심오하게 부각함으로써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는 전투적구호가 힘있게 울려나오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올해에 혁명투쟁에 대한 주제와 사회주의 건설주제의 작품창작을 적극 배합하고 병진함으로써 우리 문학이 혁명과 건설에 동시에 이바지하게 해야 하며 어느 한 주제분야에만 편중하거나 어느 한 주제를 홀시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올해 혁명문학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작품창작의 주제사상을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올바르게 설정할뿐 아니라 문학작품의 형태와 형식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 리용해야 한다.

올해에 우리 문학은 소설발전에 특별히 힘을 기울여야 한다.

문학예술의 그 어느 형태보다도 시공간적제한을 받지 않고 인간과 그 생활을 가장 풍부하고 가장 섬세하고 가장 깊이있게 묘사할수 있는 언어예술인 소설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참으로 큰 영향력과 감화력을 가지고있다.

소설을 읽는것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서 뭇태야 뭇수 없는 중요한 하나의 문화사업으로 되고있다. 소설은 대중교양에서 다른 예술형식보다 큰 역할을 놀수 있을뿐아니라 문학예술전반을 발전시키는데서 기초적이며 선구적인 역할을 놀게 된다. 좋은 소설이 있으면 그에 근거하여 훌륭한 영화문학이나 깊이있는 무대예술작품을 얼마든지 만들어낼수 있다.

그러므로 소설문학을 앞세워 발전시키는것은 문학예술발전에서 우리 당과 국가가 언제나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소설문학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철학적성을 보장하는것이다. 작품의 철학성은 철학적인 종자를 안고있는 인간성격의 본질을 생동한 생활속에서 밝혀내고 그것을 통하여 인간의 운명과 생활에 대하여 오래 생각하게 하는데서 생긴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생활반영에서 자연주의, 도식주의를 반대하고 하나의 생활세부라도 다양한 시점에서 분석적으로 뜻깊게 묘사할줄 알아야 한다.

소설문학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중심주인공의 성격을 부각하며 그의 혁명화과정,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집요하게 파고드는것이다.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은 대중교양의 귀감으로 될수 있는 긍정적주인공의 성격을 창조하는 문학인만큼 중심주인공을 시대적성격으로 거대하게 부각하는 문제는 우리 소설문학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소설문학은 독자들이 먼 후날 작품의 제목은 잊어버릴지언정 작품의 주인공은 길이 살아남는 그런 매력적이고 인상적인 성격을 생동하게 창조해야 한다.

우리는 중심주인공의 성격과 정신세계가 부각되지 못하거나 그가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이 진실

하게 추구되지 못하는것과 같은 약점을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혁명소설을 철저하게 중심주인공의 혁명화과정, 성격장성의 력사로 되게 함으로써 우리 혁명소설이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힘있는 실효투쟁의 무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주체시대 혁명운동의 본질을 깊이있고 폭넓게 보여주는 대작과 함께 당정책을 기동적으로 반영한 아담한 형식의 작품창작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작가들은 누구나 다 대작주의적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한 단편소설, 정론, 수필, 기행문, 실화, 방문기와 같은 전투적형식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써내야 한다. 우리는 소설문학분야에서 생활반영과 묘사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철학성을 높이며 작품을 흥미있게, 누구나 끝까지 읽을수 있게 써내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리는 올해에 또한 가사를 비롯한 시문학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가사는 모든 문학예술가운데서 가장 간결한 예술형식이지만 그 보급성과 침투력은 어느 예술보다도 강하다. 혁명적인 가요는 사람들이 일하면서도 부를수 있고 휴식하면서도 부를수 있으며 길을 걸으면서도 부를수 있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부를수 있으며 혼자서도 부를수 있고 집체적으로도 부를수 있다.

뿐만아니라 좋은 가사문학은 삽시에 노래와 함께 전국에 퍼질수 있고 또 시대와 더불어 그 생명력이 항구한것이다.

사람들의 생활에서 이처럼 큰 의의를 가지고있는 가사문학창작에 힘을 기울이는것은 모든 시인들의 전투적임무이다.

혁명하는 시대의 시인으로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명가사를 한편도 창작하지 못하였다면 그는 자기의 전투적사명을 다했다고 볼수 없다.

시인들은 명가사창작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서정시창작에서 사상정치성을 직선적으로 로출시키며 개념적인 설명을 일삼거나 창작적개성이 뚜렷치 못한 약점을 완전히 극복해야 한다. 서정이 넘쳐흐르지 못하고 딱딱하고 생경하거나 무미건조하여 시적흥취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시가 발붙일 틈을 주지 말고 시대의 기수, 혁명의 고수로서의 우리의 모든 서정시들이 생활을 진실하고 소박하게 노래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따로의우고싶게 될 때라야 서정시문학은 자기의 당당한 존재가치를 가지고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수 있다.

서사시문학에서도 사건조직과 감정조직을 일치시키지 않고 문학적인 이야기를 꾸리지 않으며 생활을 그대로 라렬해서는 안되며 감성선의 고조가 없이 시종 주정으로 일관시켜서도 안될것이다.

올해에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교육체제의 요구에 맞게 후대교양에 이바지할 아동문학창작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켜야 한다.

아동문학에서는 어린이들의 나이와 생활감정, 그

들의 심리적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인식 감정과 사고방식을 주입하거나 아동들이라고 하여 독자대상을 낮잡고 주인공의 생활감정을 유치하게 그려서는 안될것이다. 동심적인것과 유치한것과는 어디까지나 구별되어야 한다. 아동들의 흥미만을 추구하면서 문학적형상을 무시하고 사건본위로 작품을 꾸리거나 안온하고 따분하게 그림으로써 어린 독자들의 기호에 맞지 않게 형상해서는 안되며 언제나 주인공의 성격을 생동하게 부각하고 아동생활을 진실하게 묘사해야 한다. 또한 아동문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동화에서 주제와 형식, 수법을 참신하고 다양하게 탐구하고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동화적형상을 더 많이 창조해야 할것이다.

문학리론분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의 진수와 정당성, 불패의 생활력을 원리적으로 심오하게 해설선전하는 한편 공화국창건 30돐에 즈음하여 아버지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문학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소개선전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 문학론설들은 소설, 시, 아동문학 등의 창작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함으로써 문학창작의 선도적역할을 옹계 보장하고 창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문학리론은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경향을 철저히 반대배격하며 부르조아문학예술의 잔재와 착취계급의 비위에 맞는 요소가 우리 문학에 조금도 발붙일수 없게 주체의 선,로동계급적선을 날카롭게 세우는 무기로서의 역할을 옹계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작품창작에서 자연주의, 형식주의의 요소와 생활을 미화분식하고 허황하게 과장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하며 생활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반영하며 사상성과 예술성을 옹계 결합시켜나가도록 해야 한다.

올해 우리 문학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은 무겁고 방대하다.

올해 우리 문학앞에 나설고있는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문학창작에서 새로운 일대 양양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자기의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며 창작에서 속도전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실침투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특히 혁명사적지에서의 생활연구사업을 진지하게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은 그 어디라 할것

없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의 발걸음이 미치지 않은곳이란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가시는곳마다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적배려를 받으며 혁명가로 자라난 주체형의 인간들이 어디에나 있으며 현실에는 작가들이 책상머리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다.

우리 작가들은 안온한 창작실에서 인물이나 사건을 꾸며내지 말고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의 은덕이 깃든 혁명사적지들에서 현지체험을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충실성의 본보기들을 원형으로 전형을 창조하여야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문학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할수 있다.

작가들은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의 승리를 위한 돌파구인 채취공업을 비롯하여 당과 국가가 힘을 기울이고있는 부문인 수송, 기계공업, 농업전선 등의 들끓는 생산현장에 나가 자신을 단련하는 한편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문예선전활동으로, 직접적인 로력투쟁으로 올해의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로동자, 농민들의 생산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며 문학을 대중화하고 근로자들속에서 문학후비를 적극 찾아내서 이끌어주며 군중문학을 발전시키는 사업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작가들은 또한 현실에 나가서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초미의 문제, 현실생활이 해결을 기다리는 첨예한 문제들을 종자로 잡고 작품을 써야 한다. 우리 문학에는 사건과 생활은 그려져있으나 그것을 통하여 작가가 독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수 없었던 절실한 문제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수 없는 무난하고 두리뭉실한 작품, 철학성이 없고 상식적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 뻘드륜한 작품이 잠시도 발붙일곳이 없다. 작가들은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거기에서 우리 시대의 혁명적본질을 옹바로 파악하며 심오한 인간문제,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초미의 문제를 날카롭게 포착하고 그것을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문학을 당의 유일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적 인간학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언제나 들끓는 현실생활속에서 생활을 뜨겁게 체험하고 원형들을 세심히 탐구하며 철학적인 종자를 찾아내는 혁명적창작기풍을 수립함으로써 올해 문학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 미래를 위한 초소

정성훈

한방에 입원하게 된 구역상업과장은 모르는것이 없노라는 사람이였다.

권투이야기가 나오면 젊어 한때는 권투를 했노라고 자랑했고 가극이야기가 나오면 역시 젊어 한때는 노래도 꽤 불렀노라고 자랑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거기에 여간만 검질긴 성미가 아니였다.

지난해에 있는 우리 나라 종합팀과 외국의 한 종합팀간의 축구경기성적을 놓고 2대 0으로 우리가 이겼다고 했더니 그는 일주일째 2대 0이 아니라 3대 1 이였다고 우겼다.

결국 지쳐버린 내쪽이 침묵하고말았다. 그의 검질긴 성미는 직업에서 온것인지 모른다.

한데 그의 권투실력도 축구상식도 믿을만한것이 못된다는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한방에 우리 나라에서 이름있는 권투명수가 입원하게 된것이다.

탄력있는 근육, 민첩한 눈, 돌같은 주먹을 가진 이 체육명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의 언어》로 의사를 나누는데 습관된 말수적은 청년이였다. 그대신 짤막히 《아닙니다》, 《네, 그건 옳습니다.》라는 명확한 대답으로써 결국은 나를 긍정하여주었다.

심장상태가 좋지 못하여 입원한 그는 일과를 시계바늘처럼 지킬줄 아는 모범환자였다.

토요일저녁이였다.

의사의 회진이 끝나자 우리들은 저마침 그날의 마지막 일과를 집행하였다. 권투선수는 빈 침대 밑에서 큼직한 아령을 꺼내었고 상업과장은 하루 십분씩 빨라지는 탁상시계바늘을 바로잡아놓고 태업을 주었다.

나는 《하나, 둘, 셋...》하며 속으로 셈을 세기 시작하였다. 어제는 수면제없이 백까지 열한번인가 곱쳐세다가 잠들었다.

백까지 세번 세었을 때였다.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구급환자가 들어온듯싶었다. 얼마후 간호원이 들어오더니 한자리 비였던 침대에 새침구를 깔았다.

내과과장과 다른 한 손님이 환자를 부축하여 침대에 누웠다.

환자는 잠시후 잠이 들었다. 아마 진정제를 주사한 모양이였다.

환자의 머리장안에 손님이 가방 하나를 밀어넣었다.

환자는 처너처럼 속눈썹이 긴 이십대의 청년이였다.

내과과장은 잠든 환자를 보고서야 마음이 놓이는듯 한마디 하였다.

《무리했습니다. 젊음만 믿고서말입니다.》

내과과장이 나간다음 상업과장이 손님에게 물었다.

《한 직장에 계신가요?》

《네...구교인민학교 교원입니다. 도시애들로서는 그림으로밖에 볼수 없는것들을 실물로 보여주겠다면서 수업만 끝내면 교외에 나가 산속을 다녔답니다. 날씨도 찬데 어제 내린 비를 산속에서 맞고 그만 신열이 높아졌습시다.》

손님이 떠나고 입원실은 다시 조용하여졌다. 새환자를 위해 탁상등은 끄지 말고있어야 했다.

나는 다시 《하나, 둘, 셋,》하고 세기 시작하였다. 《넷, 다섯, 여섯... 원 직심스럽기란... 젊음만 믿고 어제 내린 비를 산속에서 몽땅 맞다니...잠인들 변변히 잤겠나...상업과장은 벌써 잠들었는데...총각교원인가? 그럼 합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부모들과 같이? ...참, 별걸 다 생각한단िका, 이게 다 늙어가는 징조야... 아니, 내가 늙었다구? 지난해 농촌지원때 그곳 아낙네들은 날 서른다섯으루 다 보았는데두? 마흔아홉이 늙었으면 나보다 두살우인 상업과장은? ...문제는 폐기문제야. 이제 퇴원하면 폐기넘치는 기사들을 광광 쓰리라... 가만 몇가지 세였더라?... 열? 스물? 모르겠는걸, 수면제를 먹어야 잠들까분데 ...》

나는 불면증때문에 두시간도 좋지 뒤치락거렸다. 다시 백까지 그 몇번 곱세었을 때였다. 교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두리번거리더니 놀라며 무엇인가를 찾았다. 머리장에서 가방을 발견하고야 마음 놓이는듯 그것을 들고 침대에 걸터앉았다. 그는 가방속에서 몇장의 종이를 꺼내더니 읽어내려갔다. 그의 눈은 환자의 눈같이 얇게 빛났다. 그가 읽고있는것은 분명 시작품이였다. 두번째번 다시 훑어보는 품이 시랑송모임에라도 나가려는 사람같았다. 그는 시읽기를 끝내더니 이번에는 엽서만한 여러장의 종이를 꺼내었다. 교원은 그 종이 한장한장에 무엇인가를 간간히 적어넣기 시작하였다.

한장 쓰고는 웃고 또 한장에 무엇인가를 적어넣고는 빙그레 웃었다. 기쁨의 미소였다.

(응용문제풀이?...)

한장한장 적어나가면서 그의 얼굴에 핀 웃음은 다양하였다. 귀엽고 평리하고 정직하고 그러면서도 장난이 심한 매 학생들의 개성적인 성격과 얼굴들을 하나하나 눈앞에 그려보는 모양이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사람이 한자리에서 그것도 기쁨에 속하는 여러가지 웃음을 지을수란 도저히 없는것이다. 직업적인 배우들도 그러지를 못할것이다.

나의 머리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사회에서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이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나는 교원의 미소를 보며 생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후대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혁명가의 열렬한 심장이 아니고서는 저처럼 사랑에 넘쳐, 기쁨에 넘쳐서 한밤중에 병원의 침상에서 홀로 웃을수가 없을것이다. 기쁨, 환희, 열정이란 강요로는 이루어질수 없는 감정들인것이다.

상업과장이 잠꼬대를 하였다.

《그건 곤란하니까...》

그의 잠꼬대에 교원은 놀라며 얼굴을 돌렸다가 다시 자기 일에 몰두하였다.

명성높은 권투선수는 언제 봐도 잠꼬대 한번없이 단잠을 잤다. 입원실에서 잠들지 못한 사람은 나와 교원이었다. 나는 불면증때문에, 교원은 어린이들을 위한 일때문에 잠들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어느덧 아직 이름도 모르는 젊은 교원에게 존경이 갔다.

종이에 글을 써넣는 일을 끝내더니 이번에는 학습장 하나를 펼쳐놓고 읽기 시작하였다. 자주 붉은 색연필로 줄을 그으며 읽어내려갔다.

시를 읊어보던 일도, 엽서같은 종이에 글을 써넣던 일도, 그리고 지금 학습장을 읽고있는 일도 모두 서로 련관된 어떤 하나의 일을 준비하고있는상싶었다.

내과과장이 들어왔다. 교원은 잘못을 저지른 어린이처럼 딱해하는 미소를 지었다. 과장은 웃더니 제손으로 교원의 학습장을 접어서 가방에 넣어주며 말하는것이였다.

《철호선생, 쉬셔야 합니다. 자, 약입니다. 이제 잡숫고 래일아침 식후에 잡수십시오.》

《고맙습니다. 과장선생, 헌데... 전 래일 꼭 퇴원해야 합니다. 가야 할데가 있습니다.》

《하하... 철호선생은 수업중에 있는 학생이 뽕을 차는 운동장을 내다보고 나가겠노라고 떼질한다면 어떤 말로 나무라겠습니까?》

《그건 물론... 하지만 전 약속했습니다. 보통약속

이 아닙니다. 애들하구 한 약속입니다.》

《안됩니다. 2~3 일 안정하셔야 합니다. 래일은 일요일이구 다음날부터 다른 선생이 애들을 맡아 보실게 아닙니까.》

《제 병은 이미... 고열은 지났습니다. 한두번 경험해본 병입니다. 채심만하면 아무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약속은 꼭 제가 리행해야 합니다.》

《교육자들에게 교육자로서의 요구가 있듯이 의사인 우리에게도 역시 의사로서의 요구가 있는것입니다. 누구도 자의대로 할수 없는 의학적인 판단으로부터 출발한것이랍니다. 철호선생은 환자이고 나는 철호선생의 건강회복을 책임진 의사이니 이런 경우 철호선생은 저의 주장에 따라야 합니다.》

과장은 그루를 박아 이야기하고 나갔다. 교원의 얼굴에는 그늘이 졌었다. 잠시후 그는 다시 학습장을 꺼내들었다.

철호교원이 몇시까지 책과 마주앉았었는지 알수 없었다. 철호교원 먼저 내쪽에서 잠들었던것이다.

새날, 일요일이 되였다,

병원에서 일요일은 면회의 날이다.

철호교원을 제외한 우리 세사람은 병원에서 두번째로 일요일을 맞는 일요일이였다.

전번 일요일의 첫 면회자는 상업과장을 찾아온 어느 상점의 인수원이였었는데 이번의 첫 면회자는 권투선수를 찾아온 그의 동무들이였다.

건강이 넘쳐나는 그들이 들어서자 방안의 분위기가 대번 달라졌다. 인사성이 밝고 서글서글한 체육인들은 당과류들을 한집 잘되게 갖고와서 입원실내 사람들앞에 무뚝뚝 쌓아놓았다.

우리의 권투선수는 동료들에게 무엇인가 조언을 주고있었다. 일요일이라 경기에 출전하게 되는 동무들이 있는 모양이였다. 그들이 떠난 다음 상업과장에게 손님들이 찾아왔다. 상업류통부문일군들과 그밖에 이웃하여 사는 사람들도 찾아왔었다.

과장은 기뻐하였다. 검질기고 재이는 성미인 그도 이런 때면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면회자들이 퇴원후 여사저사한것을 풀어달라고 하는 청에 쾌히 응하는것이였다. 그는 이런 순간 자기 직분에 대한 커다란 만족감에 잠기군하는것이였다.

나에게도 면회자들이 왔다. 가족들과 신문사동무들이 찾아왔었다.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환자는 독신자인 철호교원이였다.

권투선수도 상업과장도 그리고 나도 철호교원에게 다파를 권하였다. 그럴수록 철호교원은 거북해하였다.

《어서 드시오.》

상업과장이 진정으로 권하며 하는 말이였다.



그는 비록 성미는 검질기여도 인정이 있는 사람이었다. 구역안의 모든 세대의 살림살이를 자기 집살림처럼 진정으로 생각하며 밤낮없이 뛰는 성실한 주민들의 봉사자였다.

《어서 드시오. 타향에서 합숙생활을 하는 선생이 병원에서 일요일을 맞게 되었으니 얼마나 적적하겠소. 나는 우리 큰너석이 대학을 졸업하고 교원노릇 하겠다는걸 식료상사지도원으로 넣고말았소. 아이들을 맡아 교육한다는게 보통문제요.》

상업과장은 자기 구역 식료공장에서 새로 만든 파실단물을 맛보라면서 교원에게도 우리에게도 각근히 권하였다.

알고보니 철호교원은 대학을 졸업하고 구교인민 학교에서 교편을 잡은지 2년반 되여오는 젊은이었다.

철호교원은 상업과장이 너무도 간절하게 권하자 단물 몇모금을 마시었다.

나의 관찰에 의하면 철호교원은 누구인가를 기다리고있었다.

(애인을 기다리는가?...)

그는 손기척소리가 날 때마다 출입문에 신경을 썼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면회자이면 서운해하는 것이었다. 그는 과장을 찾아서 두세번 의사실에 갔다왔었다. 기어이 퇴원하려는 모양인데 과장은 당번을 서고 아침식사하러 집에 가고 없었다. 생각해보면 교원이란, 특히 도시에서 교원의 생활이란 《소문없는》 생활분야였다. 경기때마다 신문에 요란히 소개되는 권투명수나 구역관내에선 그의 《신세》를 지지 않는 사람이 없는 상업과장이나 도일보에 사흘이 멀다하게 《본사기자×××》하고 이름이 나는 나의 경우와는 달랐다.

열시쯤부터는 나까지도 그에게 면회자가 찾아와 주었으면 하고 원심을 쓰게 되었다. 하긴 독신자로서 갑자기 입원했으니 합숙의 한방 동무들도 알지 못할것이다. 아마 낮잠해서 선생들이 찾아올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번에 세사람의 젊은이들이 철호교원을 찾아왔다. 합숙의 한방 동무들이었다. 그들은 30 분 가까이 철호교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떠났다.

철호교원은 우리들앞으로 동무들이 가지고 온 과일을 내밀며 권하였다. 동무들이 면회하고 갔건만 그의 얼굴에 진 그늘- 기다리는 표정에는 변함이 없었다. 애타하는 심정이었다. 애인을 기다리는 젊은이의 얼굴만이 저처럼 초조하게 보일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이때 손기척소리가 났다. 모든 사람들이 문에 주의를 돌렸지만 철호교원이 더욱 신경을 쓰는 상싶었다.

나는 이번만은 기어이 철호교원의 애인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이번에도 면회자는 상업과장의 손님이었다. 인민반 반장이었는데 그는 병문안을 끝내고 일어서면서 인민반아동들의 놀이터회전대를 하나 더 마련해야겠는데 과장동무가 이번만은 좀 힘써달라고 했다. 상업과장은 이 부탁도 쾌히 받아들였다.

그가 나가자 방안은 조용하여졌다.

나는 철호교원앞으로 딸기병졸임의 물을 좀 마셔보라고 권하였다.

이때였다. 손기척소리가 나는듯싶었다. 모두들 잘못 듣지 않았나 하여 귀를 기울였을 정도로 손기척소리는 낮았다. 반응이 없었다. 조금후 다시 조심스러워하는 손기척소리가 났다. 너자의 손기척소리 같았다.

상업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러자 열린 문으로 여라문살 나보이는 총각애 하나가 두리번거리며 들어섰다. 그의 두팔에는 커다란 종이꾸레미가 안겨져있었다. 총각애 바지주머니 한끝으로는 고무총끈이 드리워져있었고 손에는 잉크가 묻어있었다. 나이로 보아 아직 연필을 쓸 또래의 인민반 2~3 학년생이었는데 아마 제 형의 잉크병을 슬그머니 써보려다가 손에 게바른 모양이었다. 그는 어줍게 방안을 둘러보았다. 순간 철호선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학남이!!》

학남은 머리를 번쩍 들었다. 환자옷을 입은 자기 선생을 알아본 그는 철호교원앞으로 달려왔다. 철호교원은 학남의 어깨를 잡았다. 철호교원의 얼굴에 비겼던 그들은 가뭇없이 사라졌었다.

《조금... 전애야... 알았습니다.》

학남은 이렇게 말하며 원탁우에 종이꾸레미를 올려놓았다. 묵지 않은 종이꾸레미는 저절로 벌러지면서 그속에 든것들을 내보였다.

그것은 이상한 꾸레미였다. 울망줄망한 종이묵음이 여러개 들어있었는데 유심히 보니 사랑, 밤, 사과, 지짐...없는것이 없었다. 저마끔 다른 규격, 다른 질의 종이에 《되는데로》 쓴 음식가지였다.

소년은 교원앞으로 답알 하나를 조심히 내밀며 입속말로 말하였다.

《밖에 ...모두 왔습니다.》

철호교원은 놀란 사람처럼 창가로 갔다.

철호교원은 두손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제꼈다.

순간 밖에서 자기 담임선생을 알아본 30 여명 어린것들이 일시에 소리쳤다.

석줄로 나란히 줄을 선 30 여명 어린것들이 일제히 소년단정례를 붙이며 자기 선생을 부르는 것이었다.

《선생님!》

모자를 바로 썼거나 삐뚜루 쓴 학생, 등산가방을 어깨에 댔거나 손에 든 학생, 크게 입을 벌리고 웃거나 다물고 웃는 학생...

붉은넥타이를 날리면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자기 선생을 바라보는 30 여명 꼬마들의 얼굴에는 맑은 웃음이 차넘치고있었다.

《선생님!!... ..》

자동차의 경적소리까지 엄금되어있는 입원실구 내에서 울린 30 여명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병원의 전체 창문들이 열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밖을 내다보게 되었다.

철호교원은 《아니? 너희들이 ...》 이 한마디를 겨우 하고는 창턱을 두손으로 꼭 쥔채 아무말도 하지 못하였다.

철호교원의 두볼로 맑은것이 주르륵 흘렀다. 권투선수의 눈에도 상업과장의 눈에도 이슬이 맺혔다. 방금 아침밥을 먹고 돌아온 내과과장의 눈가에도...

철호교원은 얼른 돌아서 손수건을 눈에 가져가더니 말하였다.

《과장선생님, 전 가야 합니다. 애들과 함께 오늘은 숲속을 연구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송모임이랑도 가지구요...》

《..... ..》

나는 놀랐다. 우리모두가 놀랐다. 입원환자가 하루를 참지 못하고 기어이 나가야 할 이유를 밝힌다는것이 고작해서 애들과 함께 숲으로 가야 할 일때문이라는것이 전부였던 까닭이다.

우리들의 생각을 짐작이라도 한것처럼 철호교원은 말하였다.

《이건 보통약속이 아닙니다. 조국의 미래와 나눈 약속이 아닙니까!》

철호교원의 말은 나의 가슴을 때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자기의 초소를 매 공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뜨겁게 깨우쳐주는 말이였다.

병원의 침상에서까지 자기 초소를 지켜 밤새 일한 사람, 누가 보건 안보건 누가 알아주건 몰라주건 자기 초소, 자기가 하는 일을 조국의 래일과 결부시켜 생각할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이 아닌가!

권투선수도 상업과장도 나도 그리고 내과과장도 철호선생의 이야기에 얼른 대답을 줄수가 없었다.

우리는 이때 각자가 자기 초소, 자기 직무를 두고 생각했던것이다.

...30 여명 꼬마공민의 대오는 떠났다. 그들앞에 철호선생이 서있었다.

병원의 창문가에서 함뿍 미소를 지은 수십수백쌍의 눈들이 그들을 바라였다.

비록 오늘은 30 여명에 불과한 꼬마대오이지만 이제 멀지 않은 래일 저 대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공화국의 영웅, 저명한 학자, 인민의 사랑을 받는 재능있는 작가들이 태어날것이며 그들의 성실한 로력의 대가로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더욱 부강해질것이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어려서 자기들을 위해 기울이는 철호교원의 뜨거운 사랑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성장하게 되면 자기세대를 위하여 바친 자기 전세대 사람들의 값높은 로력의 위훈들을 그들은 심장으로 알게 될것이다.

그리하여 자기들이 물려받았던것보다 더 많은것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위하여 조국앞에서 성실히 일할것이다.

숲을 찾아 떠나가는 꼬마들의 노래소리는 여운처럼 점점 멀어져갔다.

우리는 오래도록 창가에서 떠나지를 못하였다.

## 새날에 사는 마음

로은욱

겨울방학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집 옷방은 소년 단학습반실로 되고있었다.

지난해 가을 중등반에 올라간 막내동무를 네댓명이 매일 모여서 학습반운영을 하는것이 제법 규률이 있어서 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대견한 생각이 들곤하였다.

도란도란하는 소리에 끌리어 나는 넋지시 옷방을 올려다보았다. 아이들은 한창 《새날》 신문을 펼쳐 들고 열성스레들 읽고있었다.

《새날》 신문에도 큰 활자들로 어버이수령님을 변함없이 국가주석으로 높이 추대한 한없는 기쁨과 함께 웅대한 새해전망에 대한 기사들로 꽉 차있었다.

아이들은 바로 이 기사들을 신이 나서 읽고있었다.

한참후에는 저들끼리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제 2차 7개년계획이 끝나면 우리 나라는 또 얼마나 굉장해질가!》

《그러잖구, 그때 우린 다 대학생이 될거야.》

제법 나라의 앞날과 저희들의 희망을 잇달아서 이야기가 되고있어 나는 더욱 귀가 솔깃해졌다.

또 한 아이가 뉘레라 없이 말하고있었다.

《얘들아, 이 신문이름을 왜 <새날>이라고 했을까 하고 생각하니 많은 뜻이 있는것 같애.》

듣고보니 역시 생각이 여문 말이였다.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한 아이가 말하였다.

《저야 아버지원수님께서 <새날>이라고 이름을 달아주셨으니까 뜻이 많지 않구.》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학교에서 다 배운것을 가지구 지금 새삼스럽게 군다는것인지 잠자코 있었다.

옆의 아이도 한마디 끼였다.

《새날소년동맹도 있지 않니.》 그러자 한 아이는 《새날협동농장도 있어.》 라고 하였다. 듣자하니 제기된 문제에서 빗나가고있었다.

나는 아이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으면서 이 어린 것들이 신문 《새날》에 갖는 그 깊고도 넓은 뜻과 더불어 《새날》의 역사를 어떻게 다 알라싶은 생각이 들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그전에 열대여섯살의 중학시절에 군중 속에 들어가서 선동강연을 하고 대중시위도 조직 하였으며 등사기를 구해다가 새날소년동맹신문도 만들어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새기며 손을 꼽아헤여보니 《새날》 신문이 세상에 태어난 권해의 력사가 감명깊게 안겨왔다.

웅근 반세기, 《새날》이 태어났던 때는 시련의 시기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희망과 신심에 넘쳐 조국해방의 새날을 그리며 압제자들을 반대하여 싸워온 보람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검은 구름이 온 강토를 무겁게 드리운 생지옥에서 반만년의 력사국의 존엄이 짓밟히고있었다. 우리의 겨레들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생사존망의 갈림길에서 헤매고있던 우리 민족이 이 치욕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운명의 판가리를 요구하고있었다.

조선은 반드시 력사의 새날을 맞아야 하고 민족은 반드시 새날에 살아야 했다.

민족은 암담한 처지에서 벗어나고 밝아올 새날을 일일천추로 념원하고있었으니 참으로 조선이 낳은 위대한 아들은 온 겨레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민족의 숙망을 반영하여 몸소 창립하신 조선혁명의 최초의 공산주의적출판물인 새날소년동맹신문에 몸소 《새날》이라는 이름을 달아주시지 않았던가.

이때로부터 조선로동계급의 력사는 자기의 진정한 혁명적무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 혁명적출판물의 시원이 열리게 되었다.

참으로 《새날》의 력사무대의 출현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의 결출한 발현이였으며 세상만물을 천리혜안으로 꿰뚫어보시는 명철한 지략과 현명한 령도의 발현인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청소년들을 묶어세우시고 새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나가시며 인민들을 조국해방의 한길로 이끌어가는 길에서 혁명적출판물이 노는 역할에 그토록 큰 의의를 부여하시였던것이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려운 자금난, 자재난을 이겨내시며 출판소를 운영해나가는 사업에 온 정력을 기울이신것이 아니겠는가.

삼태성도 기울어가는 무송의 밤하늘아래 처마낮은 방안에서 가물거리는 방등불을 마주하시고 인민대중에게 주체사상의 진리를 깨우쳐주시려 한자한자 《새날》의 원고를 써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하신 영상이 우렁이 안겨온다.

조선은 독립하여야 한다.

자기 힘으로 일체를 내몰고 지주, 자본가가 없는 새날에 살아야 한다고 열렬히 호소하시는 힘찬 목소리가 귀전에 울려오는것만 같다.

어머님에 대한 생각도 같마든다.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주체사상을 대중속에 심어주시려 《새날》 신문을 안으시고 칼바람이 기승부리는 대륙광야의 솟눈길우에 자욱자욱 짙어 나가는 아드님의 혁명사업에 전심전력의 방조자이시며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신 강반석어머님의 숭고하신 영상 또한 얼마나 뜨거운 감명으로 안겨오는것인가.

수령님께서 길림으로 떠나신후부터 형님께서 서신지도를 받으시며 《새날》의 편집사업을 감당해 나가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철주동지의 담차고 세련된 풍모를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게 된다.

《새날》 신문을 받아안은 청소년들과 농민들이 기뻐하는 모습도 눈앞에 펼쳐져보인다.

발머리에서도 읽고 야학에서도 읽는다. 《개》놈들의 눈을 피해가며 밤가는줄 모르고 탐독하며 열렬한 토론을 벌리는 신심과 활기에 넘친 얼굴들...

《공산당이란 무엇인가》, 《공산주의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혁명의 진리를 깨닫고 앞길이 밝아진 이 나라 청소년들과 인민대중은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인양 밝아올 새날의 한길로만 줄달음쳐갔다.

용암이 분출하여 활화산을 이루듯, 철쇄를 마르고 일떠서는 인민대중의 뭉친 힘은 혁명대오의 거센 대하가 되어 도도히 굽이쳐갔던것이다.

이 흐름이야말로 《새날》에서 힘과 투지와 슬기를 키워온 온 겨레가 단합된 힘으로 일체를 반대하여 우뢰와 같이 하늘땅을 진감시킨 선전포고의 포성과도 같았다.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어떤 압제자와도 타협하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굴종이란 말을 모른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조국해방의 새날을 맞으리라는 오직 하나, 위대한 주체의 진리만을 아는 인민으로 이끌어간 《새날》의 탄생은 참으로 새 력사의 또 하나의 장엄하고도 위대한 선언이었다.

우리 인민은 새 력사의 선언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광명한 새날의 한길로만 달려왔다.

그리고 우리는 멀리도 달려왔다.

자기의 힘을 굳게 믿고 자기의 새 력사를 창조하는 길에 들어선 인민의 힘을 당할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진리를 우리 인민은 남먼저 체험

하고 확인하였다.

하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하고 음흉하기 그지 없는 미, 일 두 제국주의도 조선인민의 거센 투쟁에 부딪쳐 끝내는 무릎을 꿇게 하지 않았던가.

하여 우리 나라는 가장 권위있는 나라로서, 세계 무대의 당당한 선진대렬에서 주체의 조국의 위엄을 온 세상에 떨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높이도 치솟았다.

남이 열걸음 걸을 때 백걸음 걷고 남이 달릴 때 날아가고싶은 우리 인민의 지향이 이처럼 억세여 오늘은 자연도 사회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휘황한 인류리상사회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보다 찬란한 래일의 새날을 맞으려 달리고 또 달리고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새것을 지향하고 새날에 사는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새날의 설계가 있고 보람찬 희망이 나래치며 행복과 영광이 약속되어있는것이다.

하기에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새날에 살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담아 새세대들이 사랑하는 신문에 그날의 신문 《새날》의 이름을 그대로 옮겨달아주시지 않았겠는가...

어찌 그뿐이라, 먼 력사의 그날에는 그이께서 몸소 조직결성하신 소년동맹에 《새날》이란 이름을 달아주시였고 오늘은 어느 한 협동농장의 이름을 《새날》로 달아주시여 새날을 지향하는 인민의 념원을 꽃피웠고 또 꽃피어나게 해주시는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조직과 단체들이 《새날》의 이름을 달고 나아간들 그 얼마나 좋으랴.

명상에 잠겨 언제나 보람찬 새날에 살도록 이끌어주시고 행복을 안겨주시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이 넘쳐 그이의 영상을 우러르는데 옷방에서는 어린것들이 아직도 《새날》 신문을 손에서 들 놓지 않고 흥이 나서 열변들을 토하고있었다.

만약 아이들이 나를 저들의 토론판에 끼워준다면 이런 말을 해주고싶었다.

《너희들이 자라서 새날의 주인으로 나설 그때의 우리 나라는 수십만톤급의 큰배도 너희 다섯이면 넉넉히 운영해나갈수 있는 그런 높이의 과학과 기술이 발전된 시대일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아직 그 누구도 가닿지 못한 공산주의 높은 봉우리에 오르게 될것이다.》라고...

이것은 그리 먼 앞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더듬는 나의 가슴은 언제나 새날에 사는 마음에서 느껴지는 행복감으로 하여 하냥 흐뭇해지기만 하였다.

# 빛나라, 주체의 조국이어

정문향

언제나 바라보는 높푸른 하늘  
언제나 걸음 옮기는 풍요한 이 땅  
그 하늘을 다시금 바라보며  
그 땅을 다시금 걸어보며  
끝없는 생각에 잠기노라

한생을 그 하늘밑에 살고  
한생을 그 땅을 밟으며 살아오건만  
다시금 태어나는 즐거운 마음을 안고  
고마움에 젖는 가슴이어  
목메이는 생각이여

락원이여라  
만발한 화원이여라  
인간의 념원이 꽃피고  
인류의 미래가 펼쳐진 이 땅  
맑은 아침의 나라  
주체의 조국 조선이어

대륙과 대양을 넘어 달려온  
가슴가슴들이 들먹이며 노래불러라  
자주와 창조의 새 시대를 열어  
하나의 사상으로 이 땅을 빛내이고  
하나의 심장으로 이 땅을 불태우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러 불을 적시노라

이 땅우에 세월이 흘러  
몇천 몇백만년인가  
이 땅우의 세월을 다 합쳐도  
헤아릴길 없어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크나큰 인민의 행복과 영광이어!

캄캄한 세기의 절망속에  
끝장 없는 암흑의 세월이 흐르던 강토  
인간은 삶의 권리를 빼앗기고  
민족은 존엄을 짓밟히어  
산천도 빛을 잃었던 이 나라

꺼져가는 동방의 초불이 되어  
시인의 노래속에 구슬프게 울리던 조선이어  
안개낀 유럽의 하늘밑에서

배를 가르며 불려도  
조선이어, 너는 그 이름조차  
부를수 없는 나라가 되지 않았던가

눈물속에 사라져가던 조국을 생각하노라  
통곡하던 민족의 설음을 생각하노라  
억압과 고역에 등이 휘고  
수모와 멸시 속에 눈감으며 흐느끼던  
인민의 그 눈물이 가슴을 적시노라

아, 피어린 수난의 그 길우에서  
력사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존엄을 밝히시며  
몸소 눈보라 천만리를 헤치시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신 위대한 수령님

캄캄한 밀림에서  
눈덮인 산야에서  
풍랑많은 세기의 하늘가에  
주체의 기치를 휘날리시여  
불비속에 열어오신 새 력사여,  
폭풍속에 길을 여신 새 시대여!

위대하여라 인류력사우에  
인간이 인간으로 된 근원을 밝히시고  
인간이 인간으로 사는 법칙을 밝히시여  
인간을 세계의 주인으로  
시대와 력사우에 높이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

자주시대의 탄생을 환호하며  
자주의 새 인간으로 태어난 행복을 구가하며  
사람들은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불멸의 리념으로  
소리높이 노래한다

주체-김일성  
김일성-주체

아, 창밖에 비껴흐르는  
맑고 푸른 저 하늘도  
행복과 영광의 물결로 설레이는가  
눈부시게 일렁이는 저 해빛도

감격의 바다되어 굽이치는가

산에 가면 산마다  
산으로 솟아오른 그 기쁨에 설레이고  
들에 서면 들마다  
들로 펼쳐진 그 사랑에 목메이는 나라

어디가나 받아안은  
아버이사랑과 은혜  
부는 바람도  
흐르는 물결도  
인민을 위하여 흐르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한평생을 내리는 눈비에 젖으시며  
견고결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  
그 자욱우에 대지는 움트고  
그 자욱우에 백과는 주렁지여라  
그 자욱따라 이 땅의 길은 열리고  
그 자욱우에  
혁명의 성스러운 년대기가 펼쳐져라

물질로 된 세계에서 처음으로  
존엄으로 빛나는 인간을 찾아내어  
세계의 주인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인간철학의 창시자이신  
**김일성**동지!

귀찮은 호미와  
몇가락의 낫만이 남은 이 땅에서  
인간이 지닌 창조의 그 힘을 믿으시고  
력사에서 처음으로  
공업화에 앞서  
농업협동화의 새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

하나의 인간 존재로부터  
나라와 민족  
온 세계를 하나의 사상으로 비쳐주는  
주체의 태양  
인류력사는 자신의 힘을 믿는  
위대한 인민의 승리를  
처음으로 이 땅우에 기록하였나니

걸음걸음 인민의 힘을 믿으시며  
자욱마다 승리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위업이여!

원쑤의 총검을 맨손으로 빼앗아  
포악한 일제의 백만대군을 무찌르시고  
불굴의 사상과 정신으로  
포악한 미제를 짓누르시고  
용감성과 영웅성의 상징으로  
조선을 세계에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

혁명이 걸어간  
가장 빛나는 력사의 길이 있고  
쌓아올린 건설의 자욱자욱이  
투쟁과 승리의 높이로 온 세계에 거연히 솟은  
혁명과 건설의 모범의 나라

풀무간의 처량한 마치소리로부터  
세기를 뛰어넘는 공업화의 강국으로  
조선을 일떠세우시고  
해마다 만풍년의 가을로 온 땅을 덮으시며  
사람마다 기쁨과 젊음이 넘치는  
영원한 청춘의 나라 혁명의 나라로  
이 땅을 꽃피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온 세계가 우러르며  
노래하고있어라  
하나의 사상과 리론으로 밝혀지고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진 나라

하늘도, 땅도, 인민도 오직 한마음  
수령님을 받들어 이 영광을 빛내이고  
오직 한마음 인민을 위하여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위업은  
누리에 그 빛을 뿌리고있어라

아, 눈덮인 백두의 아아한 피부리  
이 땅 그 어디나  
수억만 인류의 창문가에  
주체의 성산으로 숭엄히 솟아오르고  
동트는 동해의 해돋이가  
자주세계의 눈부신 아침이 되여  
누리에 빛나는  
주체의 조국 조선이여!

우리 수령님 계시여  
금지높은 민족의 존엄으로  
조선은 이렇듯 빛을 뿌리고  
우리 수령님을 모시여  
세계의 주인된 존엄있는 인간의 목소리  
이렇듯 력사우에 높이 울리나니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끝없는 인민의 행복과 영광이여  
 오직 한마음 수령님께 영광, 영광을 드리는  
 온 강산에 터져오르는 환호성이여  
 마음속 가장 큰 축원으로  
 부르고 또 부르는 만세소리여!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을 따라  
 50여성상 혁명의 준엄한 길을 걸어왔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여

50여성상 충성의 한길을 걸어온 인민

먼먼 길이 앞에 있고  
 어려운 투쟁이 앞에 있어도  
 위대한 수령님 계시기에 승리가 있고  
 위대한 수령님 모시는길에 승리가 있기에  
 조선은 나아가노라  
 세기의 앞길을 헤치며  
 조선은 나아가노라  
 주체의 기치로 하늘땅을 뒤덮으며...

## 탄 생 외 1 편

김송남

담대한 생각을 쏟아부으며  
 쇠물남비들 천정을 날고  
 장엄한 시위의 발구름인듯  
 아름답리 소재를 두드리고 다듬으며  
 강철과 강철이 맞부딪친다

대비약의 불바람이 숨쉬는 구내  
 문득 마주서는 그 어느 기대결에도  
 어버이수령님 모시고 걸어온  
 못잇을 날들의 그 자욱은 뜨거워  
 가슴 뚫어라  
 룡성땅, 룡성땅-

네가 떠나온곳  
 재가루 날리던 그 기슭이 눈에 선하여  
 할바도 생각도 잊고 거기 서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제런듯 어리어  
 늘 보아도 언제나 처음인듯  
 새롭게만 보이는 이 전변인가

무너진 벽체들을 넘으시며  
 어버이수령님 이 기슭을 걸으시였다...  
 자욱자욱 새기시던  
 위대한 결심  
 래일의 푸른 하늘가에  
 대기계기지의 기둥을 높이 세우시며...

혁명을 하자면  
 대담성이 있어야 한다고  
 언제나 진군의 앞장에 세워주신 수령님  
 아름다운 일감들을 맡겨

큰결음으로 이 끌어주시던 그 나날에  
 그 누구도 알수 없던 하나의 신념으로  
 벌써 이 땅의 새 모습을 그리셨거니-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내던 그 숨결로  
 공업화의 새날을 불러올 때에  
 우리함께 두드려내지 않았으랴  
 자력갱생의 맥박으로 고동치는  
 자신의 큰 심장을  
 대담한 생각을 이루어가는  
 삶의 무한한 기쁨을

자주 꽃보라에 묻히우던 조립장의 새벽이여!  
 너를 못잊는다  
 대비날론의 설비들이 떠나가고  
 6천톤프레스가 실려가던 그날들에 이어  
 오늘도 발구름 높이  
 새 공장들이 떠나가는 구내선이여!  
 그 모든 해와 달과 날들을 자랑한다...

아, 혁명의 요구를 공칭능력으로 받아안으며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주먹을 믿어  
 두려움을 모르는 룡성사람들의 새 모습이  
 세월을 두고 이 땅이 얻어낸 값진 채보로  
 저 기계의 동음속에 소중히도 안겼구나!

빛나라, 수령님 걸어오신 자욱을 따라  
 폐허우에 철의 도시들을 안아세우며  
 자기의 머리에  
 자기의 생각과 믿음을 빛내인 력사여!

유성우에 태어난  
자주의 새 인간들의 장엄한 행진이어!

전진하는 그 발구름 폭풍이 되어  
경제국방병진의 앞장을 지켜  
미쳐날뛰는 원쑤의 준동을 휘몰아갔고  
전진하는 그 발구름 화산이 되어  
대건설 대비약의 넓은 길 열며  
자력갱생의 불바람을 뿜어올린다

아, 크나큰 힘의 탄생이어!  
위대한 어버이수령님  
이 땅에 룡성의 저 숨결을 주시였어라  
아름다운 미래를 마음껏 그리라고  
바라는 모든것을 제손에 틀어쥐라고  
담대한 생각과 믿음을 안고가는  
힘찬 발구름을 주시였어라!

## 우리의 충성을 심어가꾸자

한결 더 넓어진듯  
아득히 펼쳐진 논벌에 이어  
보라빛 먼 산굽이  
은빛 돌담이 안고도는 다락밭머리도  
서둘러 쌓였던 눈을 녹이며  
씨앗을 안자고 못견디게 부풀었다

진군의 쇄복을 올리자!  
두텁게 깔리는 두엄무지  
후끈한 흰김이 찬바람을 밀고  
강냉이영양단지모, 애기랭상모  
철기에 앞서 뿌리내리라고  
모판자리 고루는 그 뜨거운 숨결이  
어서 오라 농장벌로 온 나라를 부른다

달리는 《천리마》호의 동음에 실려  
앞당겨 펼쳐지는 조선의 새봄  
넓은 포전을 향해  
기계화작업반의 철대문은 열리고  
동구길 저 멀리 들어서는 자동차는  
새로운 농기계를 또 실어왔구나

이 땅이 생겨 처음 보는 만풍년의 기쁨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설레이던 벌  
한랭전선이 세계를 휩쓸어도  
이 땅에 피는 꽃, 주렁지는 열매를 지켜  
만풍년을 안아올린 가슴들이  
새 전투명령을 받들고 펼쳐나섰다

-알곡 880만톤고지에도 오르자!

우리는 이미 길을 떠났어라  
어버이수령님 올해에도 앞장서 걸으시는  
사회주의대건설의 보람찬 전선  
내리는 눈비 다 맞으시며  
천리인가 만리인가  
몸소 찾으시는 그 두렁길 그 산비탈에  
한줌흙도 비벼보시던 그 사랑을 안고가는  
풍년농사의 한해길이어!

여기에 서기 위해  
쟁파리 올리던 분배장에서  
곧바로 벌로 찍혀간 발자국이 있었다  
이 날을 위해 부식토를 찾아 골짜기를 뒤흔던  
처녀분조장의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땅과 종자와 비료의 성미를 헤아리며  
농업과학지식선전실엔 빛나오르던 그 눈빛들이  
있었다...

지하수혁명으로  
만풍년의 새 열쇠를 안겨주시고  
무쇠철마도 더 보내주신 어버이수령님  
우물과 굴포를 파고 줄짗을 박아  
지구우에 몰아쳐온 왕가물을 이겨낸  
그 황금들에서  
수령님 은덕에 눈굽을 적시던  
그 마음이 이끌어 봄은 벌써 오는가



해마다 새싹이 움틀 때  
수령님께 드릴 새 기쁨 싹틔우고  
열매철엔 그 기쁨 주렁주렁 익히자고  
한해에도 두세번 봄을 가꾸고싶고  
한해에도 두세번 가을을 펼치고싶은 마음

정시컬차의 운행표처럼  
시간과 일을 맞물려가리라  
이제 푸른 잎 싱싱히 펼쳐들  
한포기의 강냉이영양단지모도  
한뿌리의 랭상모도  
옹겨갈 새 땅, 옹겨갈 시각이  
이미 정해져있어...

한포기 한포기 세여가며  
땀이면 땀을 한껏 뿌리고싶고  
과학과 기술의 밝은 눈으로 보살펴  
열정이면 열정을 다 쏟아붓고싶은  
그 마음에 안기여  
이 벌은 철에 앞서 봄을 맞았고  
또다시 만풍년을 향해 부풀었구나!

말은 없어도  
아, 말은 없어도  
땅은 올해에도 헤아리리라  
제 가슴에 떨어지는 씨앗을 헤아리듯  
제 이랑에 뿌려지는 거름을 헤아리듯  
해빛과 바람  
봄비의 단맛을 헤아리듯  
이 땅에 부어지는 뜨거운 충성  
어버이수령님을 위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실한 로력이  
황금의 계절에로 시간을 이끈다  
자연을 길들여  
혁명이 요구하는 나락을 거두고  
계절을 앞당겨  
수령님께 드릴 새 기쁨을 펼치며  
주체농법의 위대한 빛발을 안고가는 길-

아, 880만톤고지에로, 880만톤고지에로  
흥치며 설레며 오는 가을은  
황금빛자락에 안아올리리라  
우리의 뜨거운 마음속  
다함없는 충성이 무르익은 그 무게를...

# 노래는 이 가슴에 맺혀

김수남

풍년나락이 흥치는 언덕우에 오르니  
내 마음도 만풍의 기쁨에 등실 뗏소  
팔뚝같은 강냉이이삭들을 가득 싣고  
프락뿔 몰아 언덕길을 내리는 고향처녀들의  
노래소리  
내 가슴을 마구 흔드오

불시에 뜨거움이 북받치는 마음속에  
차마 못잊을 추억이  
세월의 안개를 헤치고 일어서오  
고향의 이 낮은 언덕길을  
《아리랑》을 부르며 넘던 옛일이...

잊으라고  
옛말이라고  
들에 언덕에 금나락은 설레이고  
하늘에 땅에 기쁨 넘치는데  
노래는 이 가슴에 맺혀흐르오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밀보리 시누령게 익었건만  
터갈린 입술만 감쌀다 끝내 숨진 아들을  
헌 거적에 싸안고 저 언덕너머 묻고 온 밤에  
아버지가 실신하여 부르던 《아리랑》

타작마당한복판에  
지주놈 달구지 굴러간 저녁에  
처마밑에 무겁게 서리던 한숨  
피가 타고 가슴이 마르던 그 밤에  
깨어진 들창너머 처량하게 흐르던 《아리랑》

아, 찬비 뿌리던 낮설은 고장  
철다리밑에서 온밤 떨며  
멀어져가는 밤렬차의 기적소리 따라  
못잊을 고향의 하늘을 더듬으며  
설움에 겨운 그 가슴에서 흐르던 《아리랑》

.....  
문전옥답은 다 어디 두고  
쪽바가지 신세가 웬말인고...

아, 하늘도 피빛으로 불탔소  
강물도 원한에 차 흘렀소  
타고타서 가슴속에 재마저도 타던 그 노래  
저주로운 세월을 눈물로 떠나보내던 《아리랑》

이보소  
고향의 처녀들  
맑은 웃음을 남기고  
저 산굽이를 돌아 사라졌건만  
이 행복한 땅에서  
그 노래 생각하는 내 마음  
눈물이 피여오르오  
탐스런 금빛이삭들이  
그 멍든 상처를 어루만져주어서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해빛이 넘쳐  
능금이 드리운 산기슭  
문화주택 밝은 창문들은 웃고  
학교로 가는  
꽃같은 아이들은 들길을 지나가고  
들에 언덕에 기계소리 노래소리 넘친 이 산촌  
이 가슴의 눈물을 씻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 고평와  
그 노래 내 가슴에 더욱 맺히오

# 아, 다시금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구나

윤두만

꿈결처럼 흐르는 첫빛안개-  
길우에 하얀 명주필을 펼치는듯  
선뜻 딛기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금강산아!

물속에 깔린 희맑은 조약돌도  
거울처럼 들여다보이거니  
맑고 깨끗한 네 품에  
어찌 티끌 하나 있을수 있으랴

허나 나는 본다, 그 어느 바위밑에선  
상기도 소독냄새 풍기는듯  
등잔불 연기에 끄슬린  
싸움의 날 야전병원터를

나는 본다, 은빛 창끝을 묶어세운듯  
빛을 뿜던 저 금강의 바위들이  
미제의 총포탄에 맞아 떨어져나갈 때  
온몸의 살점이 찢기는듯  
두볼의 근육이 분노에 떨던 전사들을

아, 저마다 담가에서 뛰쳐내리며  
뒤에는 수령님 다녀가신 금강이 있다고  
원썩를 찾아 한사코 고지로 달리던  
전사의 모습이 어린 산천이여!  
탄우속을 누비며 팔을 잡던 간호원처녀  
안타까이 흘리던 그 눈물이  
물우에 흐르는 강산이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선의 아름다움이기에

한치도 빼앗길수 없고  
순간도 내어줄수 없어

피흘리며 쓰러지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서던 그 기상이  
금강의 만물상으로 치솟았는데  
습격조로 떠나던 그날의 수리개들 모습이런듯  
수령님께 맹세문을 쓰고  
전호력을 차고나갈 때 꽃은 붓끝이런듯  
일만가지 형상으로 빛나는 수리봉, 문필봉...  
저 기묘한 바위들에  
내 마음 엿어보는 뜨거움이여

여기 불연기에 끄는 인민병원터에 서니  
금시 피빛으로 타는 단풍숲속에서  
단발머리 녀전사가 웃으며 나올것만 같구나  
옥을 찢는 폭포소리에 귀기울이면  
영웅전사들의 심장의 웨침소리 들릴것만 같구나

아, 금강산 금강산아  
자연의 경치로만 무심히 보아온 너를  
뜨거운 눈길 들어  
내 다시금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구나-

구슬저내리는 한줄기 맑은 물도  
물속에 희맑은 하나의 조약돌도  
거기에 티없이 깨끗한 충성의 마음-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깃들 때  
자연도 천백배로 더 아름다워지는것을!  
산천도 전에 없는 새 모습으로 빛나는것을!

## 탈피

랑창조

성광학원은 독점으로 협궤가 뺏어나간 시가지의 변두리, 중심거리에서 퍼그나 떨어져있는 외진곳에 자리잡고있었다.

전에 일제기마대가 마사간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한 《교육브로카》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들이고 일추 개축하여 세운것이라 했다.

세월은 그후 무수한 사변을 낳으며 적지 않게 흘러갔으나 그 학원은 《박정권》이 요란스럽게 떠드는 근대 《한국》의 《혜택》에서 멀리 버림을 받고있는듯 오늘도 음달에 핀 꽃처럼 초라한 옛모습을 벗지 못하고있었다. 하지만 하루 수업이 3부제로 열리고 또한 중학교 과정을 속성으로 마칠수 있다는 《특전》들이 있는터이라 그 운명만은 그럭저럭 지탱해오고있다. 정규학교들에 비해 《공납금》이 좀 낮아서인지 대체로 넉넉치 못한 집 자식들이 다녔다. 그중에도 야간반 학생들은 거개가 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이틀데면 《생활전선》에 서있는 직업소년들이었다.

## 1

어느날 밤, 송민우가 수업을 마치고 교원실로 돌아왔을 때 벽시계는 열한점을 치고있었다. 통행금지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맘때이면 누구나 공연히 초조해지고 서둘러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도 하루 수천수백의 《즉결재판》과 벌금 딱지가 늦가을의 락엽처럼 걸핏하면 행인들의 발길에 채이기가 일쑤이다.

교원들은 퇴근차비로 한창 부산을 피우다가 서로 경쟁이나 하듯 휘파방안에서 나가버렸다.

교원실에는 송민우만이 남았다.

그는 그런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서둘지도 초조해하지도 않는다. 사실상 갈곳이 없는 신세이긴 했다. 그의 숙소는 숙직실이였다.

송민우는 천천히 자기 자리로 가 앉았다. 무슨 미진한 사무가 있는것도 아니였다. 수업을 마치고 자기 책상으로 돌아오면 의례히 한동안 조용히 앉아있는 버릇이 있었다. 평소 누구와 별로 말을 나누지도 않았다. 어떤 날은 수업과 관계된 이외에는 일체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있군했다. 동료교원들은 이런 송민우를 세상만사를 다 체념해버린 사람처럼 지나치게 말수가 적다고들 뒤에서 수군덕거렸다.

송민우는 의자등에 몸을 편히 기댔다. 폭 가라앉은것 같은 피로가 일시에 온 육신을 짓누르는듯했

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싶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고싶지 않았다.

그는 지친듯 눈을 지그시 감았다.

(저녁을 번저서일까?...)

하긴 수업도중 허기에 못이겨 수도가에 나가 물을 퍼먹긴 했다. 하루 한끼 굶는것쯤은 이제는 범상한 일로 돼버렸다. 알팍한 월급봉투를 뜯어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고나면 그의 수중에는 밥값조차 변변히 남지 않았다.

(몸이 쇠약해져서 이렇까?...)

송민우는 차츰 몽롱해지는 의식속에서 중얼거리다가 어느덧 꿈쩍 않고 굳어지고말았다...

어디선가 찢어지는듯한 통금고동소리가 울려왔다.

그는 조용히 눈을 떴다.

촉수 낮은 흐리멍덩한 전등불이나 나무등걸처럼 검스레하고 누르께한 송민우의 물팔을 비친다. 사십을 넘어선 나이치고는 썩 걸쭉해보였다. 그의 길쭉한 얼굴에는 지난날의 고달픈 생활의 흔적인양 움푹 패인 볼파귀와 흰칠하게 벗어진 이마우에 잔 주름이 뒹꼈고 고통에 이그러진듯한 오뇌의 빛이 어렸다.

피발이 선 그의 흐릿한 눈은 창밖 어둠속을 줄곧 노리고있었다.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다. 다만 깊숙한 골짜기같은 고요가 똑처럼 창문밖에 우뚝 버티여있다.

화악- 덮쳐드는 울울한 침묵을 문득 느끼자 그의 머리속에는 금시 날카로운 음향이 웅웅 땀돌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일까?... 그는 또다시 눈을 슬며시 감고 바짝 신경을 도사렸다. 곧 가늠되었다.

《우리 나라는 하나가 아닙니까?》

소년의 쨍쨍한 그 목소리였다.

그제야 그는 지금까지 가시처럼 온몸을 찌시던 압박감이 어디서 온것인지를 알았다.

(아! 싫다. 모든것이 싫다-)

그는 열난 사람처럼 주먹을 짹 쥐며 입술을 깨문 채 부르르 떨었다.

힘없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별로 피우고 싶지 않았지만 텅 빈것처럼 공허해진 가슴을 무엇으로나마 메꾸지 않으면 안되였다...

아까 야간반 1 학년 지리시간에였다.

어느날처럼 수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가싶었다.

송민우는 학생들을 향해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 지리를 공부하겠습니

다.》하고 말하고나서 흑판앞으로 돌아섰다. 능숙한 교원들이 그러하듯 그는 분필을 왼 손을 휘둘러 눈감빳할새에 조선지도를 크게 그려놓았다. 그리고 그 지도상에 남반부의 행정구역을 표시한 다음 빨간 분필을 바꿔치고 군사분계선을 가로 쪽 그었다.

송민우는 손을 털며 천천히 교탁으로 돌아섰다.

이때였다. 《선생님!》하고 누군가 걸상을 빼격거리며 벌떡 일어나는 소리가 났다. 송민우는 머리를 들고 소리난쪽을 보았다. 알진 몸에 눈매가 유독 어무진 소년이었다. 수재로 평판이 있는 김영찬이었다.

북녘땅이 공백으로 되어있는 흑판의 조선지도를 주시하며 곳곳이 서있는 영찬이의 둥그런 얼굴은 붉게 타오르고 머루알같이 까만 두눈에는 열화같이 불꽃이 튀겼다. 무언가 참을수 없고 불만에 찬 표정이다.

송민우는 언짢은 생각에 미간을 찌프렸다. 하나 집짓 부드러운 어조로 일렀다.

《어서 말하십시오.》

영찬은 우리 나라를 왜 갈라놓느냐는듯 눈을 깜작거리며 머뭇거리더니 어른들처럼 크게 숨을 한번 몰아쉬었다.

《우리 나라는 하나가 아닙니까?》

주저해하던 기색과는 달리 영찬이의 입에서는 끊어넘치는 심장의 웨침인듯 오돌찬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그것을 질문을 한다기보다 바람벽을 향해 힘껏 걸어찬 뿔을 다시 되돌아오기 마련이라는 그 단순한 진리를 말하듯 너무나도 당당하고 확신에 넘친 목소리였다.

일순 송민우의 길숙한 얼굴은 병적으로 찌그러졌다. 그는 불의에 뒤통수를 얻어맞고 아찔해지는 순간처럼 멍청한 눈길로 재빨리 학생들의 동정을 쭈 훑었다.

그 어떤 기대와 호기심에 빛나는 수많은 눈동자들이 일제히 자기에게 쏠리는것을 보자 언뜻 그는 자기 내부에서 무엇인가 웨치는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웨침소리는 목구멍속에서 요란한 메아리를 치고 맴돌뿐 끝내 입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제력을 잃지 않으려고 두쪽 어금이를 악물고 다시한번 영찬을 살펴보았다. 순간 영찬이의 까닭 움직이지 않는 시선과 부딪치자 그는 흠칫 놀라며 얼른 머리를 돌리고말았다.

공연히 흥분되었다. 스스로 자신에게 타일렀다.

(영찬이의 질문속에 무슨 다른 뜻이 있는게 아니겠지... 모든 일에 호기심이 한창 왕성하게 발동되는 시절이지... 그 호수같이 맑고 천진한 시야에 한강토의 허리를 동강내는 현상이 비쳐졌으니 왜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그는 이렇게 자신을 가까스로 억제하면서 영찬을 돌아보며 말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대로 배우면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해서는 못쓰오.》

자기도모르게 목소리가 엄엄하게 나갔다. 달리는 대답할수 없었다. 당국의 교수내용에서 탈선한 한 마디의 말이라도 그것이 어떤 후과를 낳는가를 그는 지금 뼈저리게 체험하고있는 몸이었다.

그런데 소년의 얼굴에는 그 어떤 기대에 배반당한 불만에 찬 그들이 한층 질게 드리웠다. 영찬은 분한 마음을 새기기 피로운듯 또다시 숨을 깊이 몰아쉬더니 털썩 걸상에 앉았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귀속말로 수군덕거렸다.

교실안에는 이상야릇한 공기가 떠돌았다.

《조용하십시오.》하고 송민우는 교탁을 탁 두드리고나서 피하듯 얼른 흑판앞으로 돌아서버렸다. 웬일인지 분필 왼 손이 한동안 잘 움직이지 않았다...

송민우는 그저 애꿎이 피우고있던 담배를 재털이에 산산이 비벼졌다.

인간적심이나 사회적량심을 이미 저버리고 살아가기를 결심한 그에게는 모든것이 귀찮게만 여겨졌다. 말하기도 싫고 말을 듣기도 싫었다. 그래서 모든것을 고스란히 잊고 직무에만 전념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다. 한 소년의 그 질문이 왜 이다지도 가슴에 파고드는것일까?

송민우는 가슴에 커다란 연덩이를 올려놓은것 같은 기분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차츰 나른해지는 몸을 지탱하기라도 할듯 의자에 스프르 내맡기었다. 까닭모를 울화가 옥 치밀어올랐다.

## 2

그 지리시간에 생긴 어수선한 감정때문인지 그후 송민우는 뒤숭숭한 나날을 보냈다. 무언가 모르게 답답하기만 했다.

송민우는 야간반수업에 들어가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실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나가고있었다. 이 며칠사이에 어깨가 한결 축 처진것 같았다. 마음이 한번 활짝 개이는 날이 있으면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충동은 그의 울적한 심사를 한층 키질하는것으로밖에 안되었다. 안타까웠다.

그는 자기의 이 견잡을수 없는 모순된 감정앞에서 때로는 안절부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럭 부화가 나기도 했으나 여전히 그 어떤 갈피도 못잡고 더더욱 우울해지기만 했다.

허리를 수긋하고 긴 복도를 걸어나가던 송민우는 교실쪽에서 울려오는 떠들썩한 소리에 문득 자기로 돌아왔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야간반에서 이런 현상이란 좀처럼 없었다. 낮에 고역에 시달릴대로 시달린 아이들은 학교에 와서 걸상에 앉기만 하면 온몸이 녹아붙는듯 교원이 나타날 그 짧은 시각마저 모두가 책상에 엎드려있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수업전의 교실은 언제나 조용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이 생겼길래 저렇게들 떠

들가?

빨리 걸어나갔다.

교실앞에 이르자 그는 아이들의 놀음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바람벽에 몸을 숨기고 안을 슬쩍 넘겨다 보았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방안에 아이들은 얼마나 활기에 넘쳐있는가!

영찬이의 두리에 아이들이 빙하니 성을 쌓고 영찬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좋아라 소곤거리고 손벽을 치기도 하고 법석하는데 그들의 얼굴은 그 어떤 황홀한 희망과 동경에 취한듯 밝고 아름답게 피어올랐다.

영찬이가 무슨 재미나는 이야기판을 벌려놓았기에 아이들이 저렇듯 즐거워할까?

송민우는 귀를 바짝 가다듬고 엿들었으나 저저마다 떠드는통에 잘 분간이 가지 않았다. 다만 이런 낱말이 하나, 둘 간간이 들려올뿐이다.

《교육… 테제… 통일…》

피득 그의 머리에는 지금 영찬이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하고있다는 생각이 회오리처럼 스쳐지났다.

(저 애들이 그 뼈라들을 본게로구나!)

요즘 서울거리에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선전하는 내용의 뼈라들이 나붙곤하여 경찰이며 사복쟁이특무놈들이 혈안이 되어 날뛰고있다. 교원들속에서도 은밀히 그 뼈라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있다. 신문배달이라는 직업을 가지고있는 영찬인지라 세상돌아가는 형편을 그 또래로서는 남달리 민감하게 받아들일수 있을것이다.

그러나간에 그런 말을 입밖에 낸다는것은 매우 위태로운 일이다.

불안과 긴장감에 휩싸인 송민우는 말뚝같이 뻗뻗해졌다.

그는 영찬이가 하는 이야기를 누가 엿들지나 않는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핀 다음 문을 열고 성큼 교실로 들어갔다.

송민우가 나타난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한 아이가 《쉬-》하는 소리를 내뿜자 마치 그것이 신호이거나 하듯이 아이들은 일시에 영찬이결에서 짹 흠어들었다.

아이들은 급히 자기자리로 가 앉더니 곧 새침한 얼굴이 되어 선생의 눈치를 슬깃슬깃 살피는것이였다. 하나 머리를 곧추 들고 송민우를 지켜보는 영찬이에게서는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에게서 볼수 있는 가책이나 부끄러움은 그림자도 찾아볼수 없었다.

홍겹던 교실에는 샅시에 뽁뽁한 공기가 감돌았다.

자기의 출현으로 돌변한 방안의 무거운 분위기와 아이들의 쌀쌀하고 야릇한 눈빛을 온몸에 감촉하자

송민우는 당황한 나머지 몸둘바를 몰랐다.

(아니, 이 애들이 왜 나를 경계할까?)

이런 생각이 쿡 가슴에 맺혀오자 그는 그 지리시간 이후 아이들이 어딘가 자기를 은근히 꺼려하는 기미가 있었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였다. 특히 영찬은 확실히 그 무엇을 경계하는 눈치인것 같았다.

아이들의 마음을 사기란 그처럼 힘든것인가? 학생들이 따르지 않는 교원처럼 가련한 인간이란 없다.

송민우는 그들에게 바친 자기의 소박한 애정이나 마 땀담한 배반과 모욕을 당한것처럼 느껴졌다.

평소 그는 제판에는 야간반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라고 했다. 남들이 배움의 요람속에서 공부할 때 거칠은 바다같은 세상을 자기 의지력 하나로 헤쳐가면서 살아가는 이 불쌍한 아이일수록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늘 가르쳐왔다. 그 속에서도 영찬이에게 쏠리는 그의 심정은 류달랐다. 세상 교원들이 영특한 학생들을 남다르게 대하게 되는 그런 세태적인 상정에서이랄까…

송민우가 이 학원에서 교편을 잡은지는 석달남짓 밖에 안된다.

그러나 오랜 교육자의 관찰력은 그 소년의 첫인상에서 벌써 똑똑한 아이라는것을 알아보았었다. 이런 판단은 그후 얼마 안있어 확증되였다.

어느날, 그들의 숙제장을 검열하던 송민우는 영찬이의 학습장을 번지다가 실로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다. 그의 학습장에는 2원 2차런립방정식의 수다한 문제들이 새까맣게 풀이되어있었던것이다. 벌써 2개학년을 뛰어넘고있는 소년이었다. 틀림없는 수재였다. 그때로부터 영찬이에게 쏠리는 사랑이 한층 더해졌는지 몰랐다.

그런데 그 영찬이가 이상한 눈으로 자기를 보고있다. 지금에 와서 곰곰히 돌이켜보니 자기를 이상하게 보는것은 비단 영찬이나 아이들만이 아닌것 같다.

자기와 책상을 가지런히 하고있는 력사선생도 근간에 와서는 자기를 대하는 품이 짙 달라진상싶다.

《송선생, 언제까지나 홀로 쓸쓸히 속직실살이로 고생하겠습니까? 어서 가족들을 불러다 살아야 하겠는데…》

전에는 자기만 집으로 퇴근해가는것이 못내 미안한듯 매번 이러루한 동정어린 소리나마 해주던 력사선생이였다. 그런데 그도 이즈막에는 어쩐지 무뎡뎡해졌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태연히 가버리군한다.

(왜 모두 곁을 잘 주지 않을까? 내 몸에 무슨 교약한 구린내라도 풍긴단말인가? …)

생각할수록 천불이 날 지경이었다.

그는 교탁우의 출석부를 소리나게 벌컥 뒤지더니  
성난 목청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나갔  
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도 서운하고 야릇한 생각을  
털어버릴수 없었다.

그러나 얼마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은 송민우의  
이 모든 어설피고 착잡한 상념을 더 한층 흥클어놓  
았다.

### 3

오후반수업을 마치고 교원실로 돌아오는 송민우  
에게 심부름하는 아이가 와서 원장이 찾는다는것을  
알렸다.

송민우는 곧바로 원장실로 갔다.

한병순원장은 회전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연  
방 큰 하품을 하고있었다.

송민우가 나타나자 그는 하품을 그치고 오동통한  
몸을 일으키더니 그의 앞에 무슨 종이장인지 내밀  
었다.

《송선생, 이걸 좀 보시오. 문제거리가 생겼소.》

어딘가 위압적인 어조였다.

송민우는 한동안 원장의 얼굴을 물끄러미 살펴보  
다가 종이장을 손에 집어들었다. 그것은 얼마전에  
문교당국의 시학관들이 학원에 직접 내려와서 학생  
들에게 시험을 쳤던 지리시험답안지였다.

명목은 학력검정이라고 하였다. 하나 그 진의도  
는 학생들의 사상동태를 검토하는것이 그 목적이였  
다. 어느 학교나 할것없이 학원은 반정부운동의 위  
태로운 온상이라고 보고있다. 《박정권》의 우환거  
리중에서 가장 큰 우환거리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중에도 그 학원이 항상 우려되었다.

송민우는 답안지의 주인을 먼저 찾아봤다. 김영  
찬의것이였다.

시학관들이 제시한 시험문제는 우리 나라 지도를  
그리고 그 지도상에 《한국》의 도계와 군계의 행  
정구역을 기입하고 특히 군사분계선을 표시하라는  
것이였다.

《박정권》의 남북분렬정책을 학생들에게 주입시  
키자는 의도가 대번에 알렸다.

그런데 영찬이의 답안지를 보니 시학관들이 제시  
한 문제의 요구를 초월하여 남북전조선의 행정구역  
들이 정확하게 다 기입되어있었다. 그러나 점수는  
락제를 주었다.

송민우는 의아한 생각으로 머리를 들었다.

한병순원장은 그의 내심을 들여다보기라도 한듯  
성급히 말을 꺼냈다.

《문제거리는 북쪽의 행정구역을 써놓은 거기에  
있는게 아니요. 물론 그것도 스쳐버릴수 없는 일이

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분계선을 표시하지 않는데  
있소!》

《분계선을? ...》

미처 거기에는 관심을 돌리지 못했다.

송민우는 눈을 휘둥글게 하며 원장을 히끗 한번  
쳐다본 다음 다시한번 영찬이의 답안지우에 시선을  
던졌다.

아닌게아니라 군사분계선은 표시되어있지 않았  
다.

한순간 한병순원장의 얼굴에는 분명 이것으로 하  
여 상대방에게서 나타날 그 무엇에 깊은 호기심을  
느끼고있느것 같은 빛이 떠올랐다.

송민우는 그런 기색을 눈치채자 겉으로는 아무렇  
지도 않느듯 태연한 자세를 취하려 하였으나 마음  
과는 달리 버쩍 긴장해졌다.

《시학관들이 왜 락제점수를 매겼다고 생각합니  
까?》

한병순원장이 이렇게 물으며 송민우를 똑바로 쳐  
다본다.

《글쎄 그건...》

송민우는 시뻘뻘한 안색으로 주뭇거리며 손으로  
볼편을 어루만지는 시늉을 했다.

한병순원장은 입술가에 알긋은 미소를 띠우며 그  
의 아리송한 거동을 흘겨보다가 은근히 비꼬아 말  
했다.

《설마 송민우선생이 그 까닭을 모르지야 않겠지  
요. 김영찬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 저능아라면  
몰라도 전교적으로도 수재로 꼽히는 학생이 아니요.  
그래 그가 몰라서나 또 실수를 해서 분계선을 표시  
못한것 같소? 문제와는 상관도 없는 북쪽의 행정구  
역까지도 다 써내는 아이가말입니다. 바로 이런점  
들이 시학관들의 눈에 매우 거슬렸단말입니다.》

한병순원장은 잠시 말을 끊고 정수리를 반듯하게  
치올린 머리를 손으로 복적거리다가 곧 정색하며  
말을 계속했다.

《여러말 할것 없이 한마디로 말해서 의식적인 행  
동이라는겁니다! 시학관들은 이런 <불온학생>이  
있는 학원의 운명이 어찌구 시비하면서 김영찬이란  
놈을 단단히 검토해보라는겁니다...》

송민우는 원장의 말을 어떻게 리해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영찬이가 어째서 분계선을 표시 안했는지  
그도 딱히 짚여지지는 않았지만 그걸로 해서 《불  
온학생》이요, 뭐요 하는것은 좀 과격한것 같았다.

이때 그는 영찬이에게 무슨 화단이 일어날것 같  
아 근심되였다. 그러자 문득 영찬을 위해서 무엇인  
가 변명해야 하겠다는 충동이 일었다.

그는 마침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렇게 판단하는것은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무얼, 지나친 판단이라고? …》

《아이들이란 덤벼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송민우는 일부러 진지한 내색을 하며 대답했다.

낯색이 싹 변한 한병순원장은 대뜸 어성을 높였다.

《송선생, 무슨 소릴 함부로 합니까!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마시오. 당신의 처지를 생각해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당국에서 내린 판단에 신중히 대해야 합니다…》

(당신의 처지?)

송민우는 갑자기 사지가 굳어지듯한 이상한 충동을 느꼈다.

무언가 갈퀴같은것이 목구멍을 쑤시었으나 그는 입을 굳게 다물어버리고 창밖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활짝 열려있는 창문으로는 넘적한 푸른 잎을 살랑거리는 해바라기가 바라보였다. 키높이 자란 해바라기들은 희어스름한 뒤등을 내밀고 무학산마루를 향해 일제히 머리를 쳐들었는데 기울어지는 저녁해의 노을빛을 받아 송이에 핀 꽃들이 진주알처럼 노랗게 붉게 빛났다.

어떤 심술궂은 유혹이나 강박에도 굽히지 않고 애오라지 태양만을 따르는 해바라기의 그 굳은 절조가 새삼스럽게 생각되자 송민우는 아무런 지향도, 신념도 없이 살아가는 무기력한 자신이 쓸쓸히 돌이켜졌다. 순간 그는 눈앞이 아득한 모멸감으로 다리가 사정없이 떨렸다.

《아무래도 영찬이란놈이 보통아이가 아닌것 같소! 송선생이 눈초리를 돌려 그 애를 철저히 감시해보시오…》

송민우는 한병순원장의 말을 듣는동안은 등하면서 시험답안지철을 손에 들고 묵묵히 원장실에서 나와버렸다…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의례히 한동안 조용히 앉아있는 그 버릇조차도 오늘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야간반학생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교원실로 돌아온 송민우는 아까 원장실에서 들고나온 지리시험답안지철을 앞으로 끌어당겼다.

혹시 하는 생각으로 영찬이와 한책상을 하고있는 교수남이의 답안지를 찾으려고 서둘러 시험지철을 넘겨나갔다.

평소 영찬이와 수남이는 배운것을 가지고 서로 곧잘 토론하는것을 보아왔던것이다. 신문배달을 하는 영찬이와 구두담기를 하는 수남이는 자기 또래들속에서도 각별히 친한 사이인것 같았다.

그러나 수남이의 답안지를 찾아내어 보았으나 그

는 제대로 써냈다.

송민우는 영찬이로서는 여간만 실수가 아니라고 못내 아쉬워하며 다시한번 영찬이의 답안지우에 목적이 시선을 받았다.

그런데 영찬이의 답안지를 찬찬히 뜯어보는 그의 우묵해진 두눈은 차츰 곳곳해졌다. 영찬이의 답안지를 자세히 관찰해보니 일단 표시했던 군사분계선을 꼼꼼하게 지워버린 흔적이 있는것이였다.

이상한 일이다.

(그렇다면 영찬이가 분계선을 표시안한것은 결코 덤벼서나 실수한게 아니라 의식적인 행동이었던 말인가!)

선뜻한것이 등허리를 쪽 훑어지나갔다. 그는 의자등에 털썩 몸을 내던지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지리시간의 그 질문에 대답을 주지 않았을 때의 몫시 불만에 찼던 영찬이의 모습이 곧 떠올랐다.

(아- 그때 그래서 영찬이가! …)

그는 머리가 뻗해지는 순간 신음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그럼 그 질문이 소년의 단순한 호기심따위에서 나온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란말인가? 조국을 동강내는 이 자기를 향해 《조선은 하나다!》라고 웨치는 어린 녀의 참을길 없는 항변이기라도 하단말인가! …

충격이 예상외로 컸다. 가슴이 발작을 일으킨것처럼 놀뛰었다.

송민우는 오래도록 머리를 들지 못했다. 눈살이 자주 실룩거렸다. 사색을 한몫으로 밀어가려고 골몰할 때 곧잘 보이는 버릇이였다.

영찬이의 이 모든 행동의 리면에는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게 아닐가?

흔히 생활에서는 표면에 나타나는 사실보다 리면에 숨어있는것이 진실일 때가 많은 법이다.

도대체 그 사연이란 무엇이란말인가? …

《아무래도 영찬은 보통놈이 아닌것 같소.》

한병순원장이 하던 말이 문득 마음에 켜기였다.

송민우는 소스라치듯 벌떡 몸을 일으켜 책상서랍을 신경질적으로 열었다.

언젠가 작문시간에 아이들에게 씌웠던 글을 여직 보지 않고있던게 생각되어서였다.

그는 책상우에 작문철을 꺼내놓고 급히 번져나갔다.

글은 곧 마음의 거울이라고, 천진란만한 아이들이란 더더욱 자기가 쓰는 글에 구김살이 없다.

영찬이의 작문을 찾아낸 그는 그 속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발견이라도 하려는듯 눈을 밝혔다.

… 새벽 세시, 누구나 포근한 잠자리에 들어있을



시각입니다. 그러나 나는 일어나야 합니다. 세수를 하고 신문보급소를 향해 냅다 뛰어갑니다. 네시까지 가지 않으면 신문을 받을수 없기때문이지요.

나의 하루생활은 매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오후 십리길을 단숨에 뛰고나서 학교에 가서 책상에 앉으면 살며시 졸음이 눈망울에 감깁니다.

그래도 학교갈 때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처럼 신문배달이나 구두담기같은 일을 안해도 아무런 근심걱정 없이 공부할수 있는 세상이 지척에 있다고 합니다.

나도 그런 살기좋은 세상에서 한번 마음껏 공부하고 싶습니다.

영찬이의 글은 끝났으나 송민우는 작문지에서 이윽도록 눈길을 떼지 못했다.

소년의 글에는 하루하루의 고달픈 생활속에서도 목마른 샘터를 갈망하여 모태기는 어린 녀의 몸부림이 얼마나 애처롭게 울리는것인가! 하나 그가 영찬이의 글에서 받은 보다 큰 충격은 아무 근심걱정 없이 공부할수 있는 세상이 지척에 있다는것을 소년이 이미 알고있는 그것으로 해서였다. 그런 세상이란 분명 북녘땅을 두고 하는것임을 그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었다. 북반부의 교육시책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그자신도 잘 알고있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의 치하에서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며 공부하는 북녘의 어린이들을 생각만 하여도 매번 가슴이 뜨거워지곤 하였다.

그러나 감히 그 누가 이에 대하여 함부로 입밖에 내어 말할수 있단말인가. 그런데 영찬이는 말하고 있다. 원장의 말마따나 보통아이가 아닌게 틀림없다.

영찬은 그것을 어떻게 알고있을가? 누구에게 들었을가? ...

하여간에 소년에게서 나타난 이 모든것을 생각해 볼 때 거기에는 하나의 뚜렷한 지향이 있는것 같다.

소년의 마음속에 간직되고있는 그 하나의 지향이란 무엇이란말인가?

송민우는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지기만 했다. 더 깊이 생각하지 않는게 좋다. 하나 자꾸만 새라 새로운 상념이 꼬리를 물고 나타났다.

얼마전 교실에서 영찬이가 동무들에게 하던 이야기의 낱말들이 피뚝피뚝 떠올랐다.

《교육... 테제... 통일...》

어쩐지 심란해졌다.

(아이들이란 이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란 것도 모르는 모양이지, 난들 왜 그런 제도하에서 삶을 누리고싶지 않겠나! 그 자유로운 천지에서 너희

들을 가르친다면 오죽이나 행복하고 보람이 크겠느냐. 그렇지만 무시무시한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목숨을 부지하려면 그런 생각도, 그런 말도 해서는 안되니 어찌 하겠느냐...)

이런 생각에 잠기자 송민우의 삭막한 시야에는 살얼음을 밟듯 위태로운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나가는 영찬이가 알뜰거리기 시작했다. 이때 그는 무작정 그 길에서 소년을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부풀어올라왔다.

자기의 쓰라린 전철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밝게 하고싶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문교당국과 원장이 벌써부터 색다른 눈초리로 보고있는 영찬이다.

(영찬이를 잘 타이려주어야 하겠구나! 만약 무슨 일이 생겨 배움의 길을 잃게 되면 저 툭툭한 소년의 전도가 어떻게 되겠는가.)

송민우는 어떻게 해서나 소년을 보호하리라 마음다졌다.

물론 그는 이런 결심이 자기에게 한층 피로운 고뇌의 올라미로 될줄은 몰랐다.

어느덧 그는 영찬의 작문을 손에 들고 성냥을 그었다. 그리고 그 작문지에 불을 달더니 금시 활활 타오르는 종이장을 마루바닥에 살짝 떨어뜨렸다. 위험한 화근을 영영 태워없애버리길라도 할듯이...

빨강게 타는 영찬이의 작문을 바라보는 그는 어찌된 마음의 변덕인지 불쑥 자기자신에 대한 혐오를 느끼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썰렁했다. 도망치듯 허겁지겁 교원실문턱을 넘어섰다.

송민우는 황량한 들판을 헤매는 길 잃은 나그네처럼 몸의 중심을 잃고 비칠거리며 컴컴한 복도를 걸어나갔다.

## 4

송민우는 영찬소년을 만나려고 기회를 노렸으나 쉽사리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밤에는 수업이 끝나면 통금시간이 박두하므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영찬을 볼드수가 없었고 낮에는 낮대로 자기가 오전반, 오후반의 수업에 들어가야 하기때문에 이래저래 그것이 마련되지 않았다. 하는수없이 일요일날에 영찬이네 집으로 찾아가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하루는 우연히도 영찬을 만나게 되었다.

몹시 무더운 날이었다.

송민우는 안해에게서 편지를 받고 오래간만에 거리에 나갔다. 세방을 한칸 얻자고 나선 걸음이였다. 서로 떨어져 고생할바에야 초식을 하더라도 가족이 한데 모여사는것이 좋지 않는가고 안해는 안타까운 심정을 적어보냈다.

스무해를 같이 살면서도 바가지 한번 굶는 법을

모르고 꾸넌파위는 애당초 입밖에 비칠줄 모르던 순박한 안해였다.

그 안해가 이렇게 써보낼적에는 살아가기가 여간 이만저만이 아닌것 같다.

나날이 쪼들려들기만 하는 생활을 생각할 때 그는 공연히 울화가 끓어올랐다.

폭양이 내려찍는 골목길과 대통로를 그는 세방을 찾아 숨가쁘게 헐떡거리며 걷고걸었다.

그의 물결은 며칠어간에 한층 초췌해졌다. 사실 요즘 송민우는 통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영찬이로 하여 일어난 감정의 파동때문인지 신경이 전에도없이 뻥뻥하게 죄어드는 모양이었다.

숙직실의 싸늘한 마루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청하려면 지난날에 겪은 일들이 방안에 시커멓게 도사려앉은 어둠속에서 빙빙 커다랗게 소용돌이치면서 자꾸만 머리에 덮쳐들었다.

... 송민우가 이 학원에 오기까지는령남지방의 이름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는 인망 높고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온 능력있는 교원이었다. 그런데 《반공도의교육》을 비방하는 《용공적》인 언사를 했다는것으로 중앙정보부에 끌리어갔다가 나온후 그 학교에서 나오게 되었다.

나라의 장래운명을 걸머질 후대교양은 마땅히 자유로운 환경과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동료들속에서 한마디 한것이 문제가 되었던것이다.

미제의 조종밑에 나날이 학원의 자유가 억제당하고 군사화가 진척되어가는것이 그로서는 참을수 없어 교육자의 량심에서 한 소리였는데 그것이 설마 이십여년을 쌓아올린 생활의 토담을 하루아침에 왈각 허물어버리는 화근이 되리라고는 차마 몰랐다.

그는 지독한 고문과 협박끝에 앞으로 다시는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일체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강요당한후 두달만에야 중앙정보부에서 간신히 풀려나왔다.

교단에서 쫓겨난 송민우는 발바닥이 닳도록 산지 사처로 일자리를 찾아 헤매였으나 실업대군의 아우성천지에서 막벌이같은것도 차례지질 않았다. 게다가 《요주의인물》이라는 딱지가 집요하게 걸음마다 제동을 걸었다.

무서운 세상이었다.

송민우는 폭풍에 노를 잃고 갈팡질팡하는 사공처럼 세상으로부터 멀리 버림을 당한듯한 자기의 처지가 돌이켜지자 이 무지막지한 사회에서 량심적으로 산다는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사무치게 느끼며 흐느껴울었다.

그는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땅을 치며 비분에 떨다가 처자들을 다 고향에 떠보내고 강심을 품고 홀

로 서울에 올라왔다.

달포나마 정치없이 거리를 방황하다가 근근히 일자리를 붙든것이 지금의 학원이었다.

그때로부터 송민우는 스스로 자갈을 물었는지 그의 입은 자연히 닫겨지게 되었다.

말 한마디로 신세를 망치기가 여반장같은 이 관국에서 차라리 말하는 병어리가 되는것이 나을는지 몰랐다.

그러한 인생철학을 방편삼아 고무풍선처럼 동등떠가는 얼치기인간들이 얼마든지 있다. 항간에서는 이런 얼치기를 가엾게 여겨서인지 《소라속의 인생》이라고 불렀다. 사나운 고기들에게 뜯기우고 물리울가봐 그게 두렵고 무서워서 몸뚱아리를 껍데기속으로 깊숙이 움츠러들은 족속들이라는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달동안의 《소라속의 인생》살이는 그에게 차츰 진절머리를 느끼게 하였다.

량심을 저버리고 자기자신을 기만하여 산다는것, 그것은 모멸과 자기 학대로 가슴 뻑뻑 찢기는 숨막힐듯한 삶 아닌 생활이었다. 하나 송민우는 아직은 《소라속의 인생》에서 탈피하기가 꺼려졌다. 진리를 말하기가 두려웠고 량심이 가리키는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구월의 무더위가 확확 안겨온다. 입안이 마르고 눈알이 튀어나올것만 같다.

송민우는 전신에 땀을 흘리며 다리를 허위적거리면서 발길이 닿는대로 마장동, 신당동, 왕십리를 돌아쳤다.

반나절을 해메며 물색한 보람이 있어 찌그러진 관자집 한칸을 겨우 얻어냈다. 비록 볼품없고 집이라고 하기에는 서글픈것이였으나 그래도 보금자리가 생겨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귀로에 올랐다.

그는 학원쪽으로 가는 전차를 타려고 한 정류소에서 이마에 땀을 문지르다가 전주미에서 구두닦기를 하는 두 소년을 발견했다. 한순간 그의 입가에는 회심의 미소가 어렸다. 영찬이와 수남이였던것이다. 얼른 그들곁으로 다가갔다. 일에 정신이 팔려있는 두 소년은 자기들 선생이 와있는것도 모르는 모양이다.

수남이는 한 신사의 구두발우에 땀이 얼룩져 소금버개가 하얗게 핀 잔등을 내밀고 부지런히 손을 놀리며 솔질을 하는데 영찬은 그의 옆자리에서 벗어놓은 신발의 흠을 꼬챙이로 털어내고있었다. 해별에 가망게 그들은 두 소년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번지르르했다.

《너희들이 수고하는구나!》

송민우의 음성이 울리자 부지런히 일손을 놀리던 두 소년은 금시 막 굳어졌다. 그들은 무엇에 저어하듯 서서히 고개를 들었는데 그 표정은 어딘가 매우

시답잖은 빛이었다. 수남이는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영찬이의 거동에는 차거운 기운이 풍기는 듯했다.

이들의 웅크리지않는 모습을 대한 순간 송민우는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그려졌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그는 우정 시치미를 툭 떼며 두 소년의 어깨 위에 다정하게 손을 얹으며 말을 건넸다.

《영찬이는 신문배달도 하고 구두닦기도 하나?》  
《... ...》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어린 마음에도 쑥스럽게 여겨졌던지 수남이는 구두약이 살짝 게발린 들창코를 벌름거리며 영찬이 앞질러 끼어들었다.

《선생님. 참 답답해요! 그만두라고 자꾸만 하는데 영찬인 신문배달이 끝나면 언제나 내 구두닦기를 도와주지 않아요. 좀 자지두 않고...》

이때 침묵을 지키던 영찬이가 그따위 시시한 선생에게 무얼 그런 소리까지 다하느냐는 듯 수남이를 마뜩지 않게 흘려보며

《수남이, 그만 하거라!》하고 그의 말을 밀막아 버렸다. 그 서술에 수남이는 공연히 들창코만 벌름거리며 입을 다물고말았다.

티없이 깨끗한 우정이 오가는 두 소년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자 송민우는 실로 오래간만에 맑은 정화된 감정을 문득 느꼈다.

《허허...》

그는 저절로 웃음이 나갔다.

《손님이 기다리는데 수남이는 어서 구두닦기를 하여라.》

송민우는 수남이에게 이렇게 이르고나서 영찬이 쪽으로 돌아섰다.

《영찬이, 선생이 너에게 좀 말하고싶은게 있는데 ... 저기라도 가서 좀 앉을가.》

플라타나스나무그늘이 드리운곳으로 그는 영찬이의 손목을 잡고 발걸음을 떼었다.

두사람은 잡초우에 나란히 앉았다.

한낮의 따가운 해별이 내리쬘었다. 눈앞에는 번잡하고 소란스러운 시가지가 안겼다. 각양각색의 알록달록한 간판이며 광고판들이 해빛에 번뜩거렸다. 아스팔트길 위에는 자동차들이 연방 꼬리를 물고 달렸고 인디아에는 래왕하는 사람들로 오글오글했다.

송민우는 어느덧 영찬이 앞으로 돌아앉으며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영찬이는 꼭두새벽부터 신문배달하느라 잠도 변변히 못갔겠는데 눈이라도 좀 붙이고 나왔나?》

《예.》

영찬은 선생이 자기에게 갑자기 하고싶다는 말이 무언지 궁금한듯 두눈을 깜짝거리면서 슬깃슬깃 눈

치를 살핀다.

송민우는 이런 영찬이가 갓난애 모양으로 무심해도 보였다. 비록 눈꼬리가 만만치 않는게 무척 편리하고 당돌해보이나 붉고 도톰한 입술에는 역시 애기가 어렸다.

그는 먼저 영찬이의 가정형편부터 묻기로 했다.

《아버지는 무얼 하시니?》

불시에 영찬이의 까만 눈눈이 편득 빛을 뿜더니 그 무엇을 가늠할듯이 송민우를 면바로 지켜본다. 찌르듯이 쏘아보는 소년의 눈초리는 《이자가 어디 끝나볼이 아니야?》하고 경계하는것처럼 예리했다. 영찬은 무겁게 고개를 내려뜨리며 툭 한마디 내비쳤다.

《남산<중앙정보부>에 잡혀갔어요.》

《뭘. 남산에?!》

송민우는 지르기 놀라운 어조로 반문했다. 남산이라면 주로 《정치범》들을 대상으로 하는곳이다. 그는 자기도모르게 몸이 오싹해났다.

돌연 안색이 변하는 선생을 보자 영찬은 그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 더해지는듯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소년은 불쑥 자리에서 일어났다. 머리를 곧추 들어 송민우를 향해 눈한번 깜빡이지 않고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예요!》

엄숙하리만큼 툭툭하게 울리는 영찬이의 다기찬 목소리는 가슴을 에일듯 송민우에게 못박혀왔다.

이때 소년의 눈곱에는 하얀것이 언뜻 비졌는데 영찬은 몸을 휙 돌파세우더니 꼭 오무려쥔 작은 주먹을 내지르며 앞으로 내달았다

《영찬이!》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킨 송민우는 안타까이 소리쳐 불렀다. 하나 소년은 벌써 사람들의 물결속에 말려들어 그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영찬이가 사라져간 거리쪽을 화석처럼 굳어져 아연히 바라보는 송민우는 가슴들먹이며 자신을 건잡지 못했다.

(지리시간의 그 일을 두고 확실히 영찬은 나를 좋지 않는 인간으로 보는게로구나!)

자기 심정을 조금도 몰라주는 영찬이에 대한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듯 매정스럽게 자기결에서 달아나버린 소년이 너무나 야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런 허전한 심정은 얼마 가지 못했다.

위태로운 길에서 소년을 구원하리라 품었던, 진심으로 타일려주리라던 그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있는 자신이 상기되자 이번에는 불안과 초조감에 사로잡혔다. 영찬이가 이제 꼭 무슨 일을 지질러 놓을것만 같았다.

(어서 말해주어야 하겠는데...)

송민우는 언제까지나 움직일줄 몰랐다.

## 5

그날따라 아침부터 비안개가 뽀얗게 흘날리었다. 어디를 보나 땅거미가 내리는무렵처럼 어스레했다. 사위가 어둑어둑 저물어가자 바람이 세차게 휘몰아 치면서 비는 억수로 쏟아져내리기 시작했다.

야간반의 수업에 들어와 출석을 부르는 송민우의 시선은 무시로 영찬이와 수남이의 책상으로 쏠리곤 하였다. 지금 두 소년의 자리는 비어있었다. 아무리 사나운 날씨에도, 웬만한 몸값이에도 여직 결석은 물론 지각조차도 단 한번 없던 그들이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으나 누구하나 알지 못했다.

(이 애들이 어찌된 일일까?)

그가 출석을 다 부를 때까지도 두 소년은 나타나지 않았다. 교수안을 펼치고 수업에 막 들어가려 하는데 출입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다.

송민우는 고개를 돌렸다. 물참봉이 된 수남이가 잔뜩 흐린 낮빛으로 들어서고있었다. 구두담기통을 어깨에 멘채로 들어서는 수남이의 손에는 걸레쪽같이 된 모자가 쥐여져있었다. 흠뻑 젖은 그의 바지가 랭이에서는 물이 툭툭 떨어져 금시 마루바닥을 흥건히 적신다.

소년은 웬일인지 벌을 서는 아이들처럼 고개를 푹 떨구고 문앞에 오도카니 서서 움직일줄 몰랐다.

송민우는 조용히 말했다.

《수남이, 어서 자리로 가 앉으시오.》

갑자기 수남이의 어깨가 격하게 떨렸다. 송민우는 의아한 생각으로 급히 교단에서 내렸다.

《왜 그러나?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그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며 낮은 소리로 물었다.

《영찬이가...》 하고 수남이는 말하다말고 또다시 고개를 짓속인다.

《영찬이가 어쨌단말이나?》

송민우의 목소리가 성급하게 울렸다.

《경찰에 잡혔어요.》

《영찬이가 경찰에?!...》

덜컥 가슴이 내려앉는듯한 충격에 송민우는 부르르 몸을 떨며 수남이의 어깨를 잡아흔들었다.

《무엇때문에 경찰에 잡혔단말이나?》

방안이 급기야 뒤숭숭했다. 아이들이 벌떡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수남이의 두리에 모여들었다.

수남이는 함뻑 젖은 목소리로 띠엄띠엄 말하기 시작했다.

...석간신문배달을 마치고 영찬이는 수남이와 함께 학교에 가려고 네거리를 지나고있었다. 이때 벌안간 호각소리가 사방에서 울리고 경찰과 사복특무놈들이 벌떼처럼 나타나더니 교통을 차단했다.

놈들은 눈에 초롱을 달고 길가던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붙잡고 몸을 발각 뒤지기 시작했다. 며칠전 이 근방에는 뼈라가 하얗게 나불었었다.

그런데 사복쟁이에게 물수색을 당하던 영찬이에

게서 뼈라가 나왔다. 경찰에게 떡살을 붙잡힌 영찬은 《웨 이래요. 놓라요. 종이로 쓸려고 건사했던거예요!》 하고 발명하며 발버둥쳤으나 놈들은 막무가내로 그를 경찰서로 끌고갔다...

수남이는 말을 그치고 애원에 찬 눈길로 선생을 뵈히 올려다본다.

유리를 뽀얗게 적시며 연송 비방울이 튀기는 창문을 묵묵히 바라보는 송민우의 얼굴은 무쇠처럼 굳어져있었다.

이윽고 그는 발길을 떼었다. 말없이 출입문을 열고 교실을 나갔다. 아이들이 웅성거리며 그의 뒤를 따라나섰다. 그는 뒤돌아보며 아이들을 향해 말했다.

《너희들은 조용히 복습들을 하고있거라!》

비는 뿔을줄 모르고 의연히 쏟아졌다.

송민우는 눈속으로 자꾸만 빨려들어가는 비물을 뿌리치며 정신없이 걸었다.

그는 자기가 무엇때문에 경찰서로 가는가 생각했다. 내키지 않았다. 그렇지만 영찬이를 위해서 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단숨에 경찰서까지 왔다. 막상 당도하여 안으로 들어가자니 웬일인지 주저해졌다. 우뚝 멈추어서서 망연히 앞을 내다보았다. 경찰과 사복쟁이들이 런던달아 경찰서정문을 들락날락한다. 어디서 무슨 시위투쟁이라도 발생했는지 퍼런 비옷과 철갑모를 뒤집어쓴 경찰을 가득 태운 자동차들이 정문을 빠져나와 미친듯이 고동소리를 울리며 울지로쪽으로 질주해간다.

이 살벌하고 스산한 광경때문에 망설이여지는것일까?...

《요주의 인물》... 《당신의 처지》...

무엇인가 속에서 악마구리 끓듯했다.

전신에 오한이 기여드는것 같다. 눈이 뿌연게 흐려졌다.

(아- 무엇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저하는걸까? ... 저 영찬이를 어디다 그냥 내버려두고 물러가겠다는 것인가? ...)

송민우의 입에서는 신음소리와도 같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그는 지금 자기가 경찰서 정문을 향해 걸어가고있다는것도 몰랐다. 경찰보초가 앞을 막아나서서야 그는 비로소 자기로 돌아왔다.

《무슨 일로 왔소?》

보초가 묻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든 그는 앞뒤없이 찾아온 사연을 말했다.

잠시후 사복쟁이가 나와 송민우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형사놈은 송민우를 자기 책상앞에 앉혀놓고 대뜸 눈알을 부라렸다.

《학생선도를 어떻게 했기에 저런 불순한 자식이 나오나말이야!》

놈은 책상을 탕! 치며 으르렁댔다.

송민우는 형사놈을 서늘히 바라보았다. 갱핏한 상판에 마마자국이 송송한눈이었다.

(영찬이가 불순한 자식이라고…)

별이 울컥 치밀어올랐다. 하나 그는 꼭 참았다. 소년을 구원해야 한다는 한가닥 마음의 걱정을 억제했다.

《워낙 분별없는 아이들이 돼와서.》

마지못해 이렇게 한마디 대꾸했다.

마마자국은 앙칼진 눈초리로 송민우를 치며보았다.

문득 옆방에서 심문소리가 울려왔다.

《이놈, 대답 안하겠느냐! 뼈라를 누구한테 얻었는가말이야?》

영찬이를 다닥질하고있다는게 험사리 알렸다. 연방 고아대는 악다구니에도 상대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모양이다.

《거짓말할테냐! 이놈…》

또다시 독살스러운 욕설과 후려갈김소리가 들려온다.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뒤따랐다. 송민우는 가슴이 빠직빠직 타들었다.

《이놈새끼 그래도 말 못해!》

후려갈기는 소리가 다시 울려오자 송민우는 더는 견딜수 없어 후닥닥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마마자국에게 매어달리듯하며 말했다.

《저 아이를 제발 놓아주시요! 철없는것들이 아니요.》

《무엇이 철없다구?》

칼날같이 차거운 어투가 그의 가슴을 할퀴듯하며 울렸다. 마마자국은 애당초 받아들이려 안했다

송민우는 이번에는 어깨를 폭 낮추고 빌붙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으니 이번만은 관대히 용서하여주십시오.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저 애를 선도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황야를 헤매는 바람소리처럼 떨려나왔다. 마마자국은 힐끗 송민우를 한번 흘겨보고 나서 한동안 생각에 잠겨 말이 없더니 자리를 일어 옆방으로 갔다. 잠시후 그는 도로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선생이 책임지겠단말이지요?》

갑자기 태도를 일변한 마마자국이 공손한 어조로 나왔다.

《아이가 입을 잘 안벌리는데…》 하고 형사놈은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다가 송민우를 주시하며 오금을 박듯 말했다.

《선생이 책임지겠다니 이번만은 관대하게 보아주겠소. 앞으로 이런 불순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학생선도를 잘 하시오. 자, 여기다 시말서를 쓰시오.》

송민우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시말서를 썼다. 정작 일이 예상외로 풀리자 은연중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놈들의 박해에서 사랑하는 제자

를 건져냈다는 기쁨이 그런 어수선한 감정을 고스란히 물리쳤다.

영찬은 형사놈에게 끌리어 들어왔다. 송민우가와 있는것을 보고 영찬은 깜짝 놀란 모양이다. 소년은 무엇인가 알았다는듯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입술을 이그러뜨렸다. 그러나 송민우는 험상궂게 변한 영찬이의 모습을 보자 눈앞에 안개가 서리어 소년의 그런 기색을 알아보지 못했다. 영찬이의 입술과 코마루는 터져 얼룩졌고 퉁퉁 부어오른 두눈은 꺼멓게 피멍이 엉켰다. 천진한 영찬이의 눈이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나 꿰뚫어볼수 있을듯한 예리하고 아름다운 눈이었다. 그 호수같이 맑은 눈을 저렇게 해놓다니…

《이게 무슨 꼴이냐! 정말 너는 답답한 아이로구나!》

송민우는 영찬이앞으로 다가서며 안타까운듯 부르짖었다.

영찬은 힐끗 송민우를 한번 바라다보았을뿐 말없이 먼저 방을 나갔다.

모든것이 축축히 젖어있었다. 비발이 끊어진듯 비내리는 소리가 한층 소란스럽게 울렸다.

《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가자!》

경찰서 정문밖으로 나오자 송민우는 병원이 있는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자 영찬은 우뚝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더니 낮으나 짹짹 울리는 소리로 말했다.

《병원에는 저혼자라도 갈수 있어요!》

《뭘, 혼자 가겠다구?!》

송민우는 눈을 희번덕이며 멍청히 소년을 지켜보았다. 영찬이가 이렇게 로골적으로 뽐담하게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소년이 어느새 그의 곁을 떠나 비속으로 달려가고있었으나 송민우는 넋잃은 사람처럼 못박힌채 영찬을 찾지도 따라서지도 않았다. 물방울에 맺혀 두드러진 그의 새까만 눈썹이 축 젖어 가늘게 떨었다. 불현듯 그의 눈앞에 아이들의 경멸에 찬 눈, 눈들이 수백, 수천으로 확대되어 안겨왔다. 무엇인가 뇌수를 자극하며 지나갔다.

《우리 나라는 하나가 아닙니까!》

《교육…테제…통일…》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예요!》

송민우는 바다가에 내버려진 소라껍질처럼 참을수 없는 외로움이 옥 밀려오는 순간 머리가 펑펑 내돌려지는 자신을 의식했다. 그러자 눈앞의 모든 것이 아스름푸른 룩팍으로 안겨오면서 질주하는 자동차며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며 크고작은 건물들이 기우뚱거리며 옆으로 뱅뱅 떠가는것 같은 환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어느덧 비칠거리며 길가의 가로수에 몸을 내던졌다. 머리우에서는 누군가를 희롱하듯 붉고 푸른 네온등불빛이 핑그르르 뱅글쾅쾅다가 깜빡하고 꺼지며 련속적으로 쉬임없이 돌았다. 그럴 때마다 《카바레 텍사스》, 《빠-뉴 도교》 따위의 꼬불꼬불한 글발들이 겨뭇내기라도 하

듯 명멸하며 송민우의 모습을 우련히 드러내군한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

송민우는 조용히 눈을 떴다. 그는 마치 지옥에서 빠져나온 사람처럼 무수한 인간을 파멸어로 몰아간 이 저주로운 세상을 처음 보듯 아련한 눈빛으로 멀리 별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머리가 깨끗이 개이는것을 느꼈다. 열병을 앓고난 뒤처럼 맥은 하나도 없으면서도 비상이 정신이 맑아오는듯싶었다.

송민우는 이 시각 이제까지 자기를 지배하고있던 것이 무엇이였는가를 스스로 깨달았다. 투옥과 고문, 생명을 위협하는 그것들이 자기 체내에서 무서운것으로 부풀어올라 종당에는 《소라속의 인생》으로 전락되였던 자신이 생각되였다. 파쑈의 폭력앞에 의지와 심혼을 온통 빼앗기고 절망하여 몸부림쳐왔던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신이 생각되였다.

(그래 내가 과연 인간이라 할수 있었겠는가. 자주성을 상실하고 인간의 존엄마저 망각했던 내가... 금수만도 못한, 조그마한 변동에도 사지를 움츠려드는 무당벌레에 지나지 않지 않았는가, 아-)

송민우는 뼈아픈 회오를 온 심장깊이 깨달은 순간 자기 내부에서 무엇인가 큰 소리를 내면서 무너져내리는것을 느끼며 두손으로 가슴을 짊 움켜쥐었다.

이런 송장과 같이 구린내가 풍기는 비겁한 인간을 어찌 사람들이 경멸과 령대로 대하지 않겠는가. 그들과 자기 사이를 갈라놓은 장벽은 바로 그 저주로운 《소라속의 인생》이었던것이다.

송민우는 눈먼 사랑으로 영찬이까지 《소라속》으로 끌어들이려던 지난날의 자기가 더없이 혐오스러웠다.

어느덧 송민우의 가슴속에는 일찌기 체험하지 못한 뜨거운것이 높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거리의 한복판으로 나서더니 머리를 높이 들고 아이들이 기다리는 학원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해나갔다.

## 6

송민우는 열시가 좀 지나서야 학원에 도착했다. 현관으로 들어서는 그를 본 한병순원장이 기다렸던듯이 급히 달려와 송민우앞으로 다가서며 투덜거렸다.

《송선생, 어딜 갔다 오시오? 허-참...》

송민우는 원장의 서둘러대는 거동에 무언가 상스럽지 못한 예감이 들면서 그를 생소한 사람을 대하듯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병순원장은 이미 경찰에서 영찬이에 대한 문제를 전화로 연락받고있었던것이다. 문교당국에서도 또한 그에 대한 지시가 내려왔다. 그래서 야간반학생들을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대기시켜 송민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있던중이였다.

한병순원장은 이마살을 잔뜩 지프리며 직판 들이댔다.

《송선생은 무엇때문에 영찬이놈 역성을 그렇게 드는겁니까? 당신의 처지로서 왜 그런 시끄러운 일에 간참하고 돌아가는가말이요? 참 모를 일이로구만...》

원장은 여기서 잠시 말을 끊고 그에게 전보지를 넘겨주며 신중한 어조로 덧붙였다.

《보시오. 가족들도 이제 올라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처신을 잘 해야지. 그런 <불온학생>의 역성이나 들고 한다면 장차 당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말이요! 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송민우는 전보지를 받아쥐고 읽었다. 래일아침 기차로 가족들이 도착한다는것이였다. 사실 집을 구한후 안해에게 편지를 띄워놓고 기다리던중이였다. 그는 마음이 설레이였다. 사랑하는 아들딸과 안해가 한시바빠 보고싶었다. 새생활을 맞이하게 되는 기꺼움처럼 흥분되기도 하였다.

《자, 어서 교실로 갑시다. 지금 아이들이 기다리고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밤으로 전달해야 할 문교당국의 지시가 있소!》

한병순원장은 이렇게 말한 다음 발걸을 떼더니 교실을 향해 부지런히 걸어나갔다.

(문교당국의 지시?)

송민우는 원장의 뒤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가족들과의 상봉을 그리며 설레이던 마음이 금시 까닭 모르게 긴장되였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나갔다.

원장의 뒤를 따라 교실에 들어선 송민우는 조용히 아이들을 휘둘러보았다.

방안분위기가 사뭇 평온치 않았다. 영찬이로 하여 얼마전까지 마음조이던 아이들인지라 원장과 송민우의 출현은 그들에게 새로운 불안을 안겨준듯 모두 눈들이 꽃뻘했다. 송민우의 시선은 문득 한곳에 멎었다. 영찬이가 어느새 와서 자기 책상에 어느날처럼 태연히 앉아있는것이다. 소년의 한층 별것게 부어오른 얼굴에는 피발이 선 두눈만이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영찬이가 언제 왔다! 저런 꼴을 하고도 배우겠다고... 고집이 센 아이야, 그만치 병원엘 가서 치료를 받자고 했는데도...)

송민우는 어색해졌다. 평하니 눈에 눈물이 피었다.

한병순원장이 교탁앞에 서더니 정중하게 입을 벌리기 시작했다.

《당국의 지시를 전하겠습니다. 전번 지리시험때도 그렇고, 오늘 빠라문제도 그렇고 국시를 역행하는 불온한 행동을 한 김영찬이를 오늘을 기하여 출학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다른 학생들도...》

송민우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의식할수 있는것은 영찬이를 출학하기로 결정했다는 울림뿐이였다.

(이놈들이 기어코 저애를...)

격분이 치솟아올랐다. 배움의 길을 빼앗기고 실

망과 슬픔에 젖어있을 영찬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기울듯했다.

(아까운 아이인데 ...) 울고라도 싶었다.

문득 영찬이에게, 어둡고 모질은 세파에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 모든 아이들에게 밝고 희망찬 미래에 대하여 단 한번도 이야기해주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참을수 없이 돌이켜졌다.

《송선생, 말할게 없습니까?》

혼시를 마친 한병순원장이 그에게 물었다. 송민우는 잠시 아무 대꾸도 없이 서있었다.

(영찬이에게 꼭 말하고싶은게 있었는데...)

영찬이만이 아닌 모든 아이들에게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을것 같았다.

이윽고 송민우는 허리를 수긏하고 천천히 교단으로 올라섰다. 교탁앞에서 아이들을 새삼스럽게 돌아보았다. 모두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영찬이마저 얼굴을 들지 못하고있었다. 방안은 마치 소란도 고뇌도 없는 안개질은 새벽의 아득한 대안처럼 첩첩한 정적에 휩싸여있었다. 모든것이 거기에 빨려들어가는듯 한대중으로 내리는 단조로운 비소리가 교실안의 무거운 침묵을 더 한층 깊은것으로 만들고 있는것 같았다. 이때 느닷없이 송민우의 머리에는 이 밤 렬차에 흔들리며 자기를 찾아오는 안해와 자식들의 그리운 모습이 떠올랐다. 가슴속이 알싸했다. 그는 이 부질없는 생각을 물리치기라도하듯 두주먹을 불끈 쥐며 눈을 부릅떴다. 그리고 지지리 답답한 분위기를 깨치듯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학생들! 전에 김영찬이가 나에게 질문한 문제가 있었지요? 우리 나라는 하나가 아닌가고...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겠습니다.》

아이들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 영찬은 까만 눈동자를 빛내며 송민우를 뚫어지게 지켜보고있었다.

그는 말을 계속했다.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삼천리 아름다운 우리 나라에는 예로부터 한 피줄을 이어온 하나의 민족이 살아왔습니다. 남북은 하나의 강토입니다. 남과 북은 서로 갈라질수 없고 우리 겨레는 그 누구도 갈라져 살기를 원치 않고있습니다. 분계선은 허물어버려야 합니다. 조선은 하나입니다!》

소라껍질에 둘러싸인 장벽을 산산이 까부시고 이제까지 깊숙이 움츠려들었던 가슴속에 영키고 뗏힌 그 응어리를 터쳐내듯 송민우는 자신도 놀라울만큼 결연히 말했다.

급기야 교실안이 흥성거리기 시작했다. 검은 구름에 가리웠던 못별들이 갑자기 얼굴을 내밀고 령롱한 빛을 내뿜듯 수십의 아이들의 눈동자가 반짝거리며 송민우를 올려다보았다. 지금까지 자기 선생이 것처럼 친근하게 보인적은 없었다.

송민우는 영찬이를 바라보다가 금시 목안이 확달아올랐다. 출학의 선고를 받고 실망해있을줄로만 여겼던 영찬이가 얼굴에 함뿍 아름다운 미소를 피우고 두눈을 빛내고있는게 아닌가!

《송선생, 그게 무슨 소리요?!...》

한병순원장이 켠해진 눈으로 송민우를 향해 손을 내들었다. 그러나 그는 원장을 거들떠보지 않고 교단을 내려섰다.

《선생님!》

영찬이가 송민우앞으로 달려들어 그의 품에 와락 안기었다. 그는 소년을 두손으로 뜨겁게 끌어안았다.

《영찬아, 이제 너희들도 활개펴고 마음껏 행복하게 배울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 언제나 공부를 잘 해야 한다.》

영찬이의 작은 어깨가 세차게 흔들렸다.

이때 송민우의 머리에는 사람의 수족은 얹어뻐수 있어도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따사로운 품속에 안겨 살기를 념원하는, 소년의 순결한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는 그 고귀한 하나의 지향은 그 어떤 총칼로도 얹어뻐수 없으며 어떤 사납고 모질은 구두발길에도 짓이겨질수 없다는 새로운 신념이 별살처럼 피여올랐다. 그는 소년의 그 아름다운 지향을 꽃피우고 영원히 지켜줄듯이 영찬이를 더욱 뜨겁게 뜨겁게 포응했다....

그날 송민우가 경찰에 체포되어 학원의 수직실을 떠난것은 통금시간도 이미 지난 새벽이 가까와오는 깊은 밤이었다.

그는 고개를 높이 들고 뿔뿔이 걸어갔다. 손에는 비록 수갑이 채워졌으나 그의 뉘은 자유의 세계에 살아있었고 그가 심어놓은 씨는 영찬이의 가슴속에, 아니 성광학원의 모든 학생들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박혔다.

사위는 먹을 뿌린듯 여전히 캄캄하여 이 어둠이 영원히 계속되는상싶었으나 머지않아 반드시 동이 터울것이였다.

## 지식인문제를 취급한 장편을

황건

지금 나는 지식인문제를 취급한 장편을 쓰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당의 **옳바른 인테리정책에** 고무된 우리의 인테리들은 광복후 첫날부터 새 조국 건설에 떨쳐나섰습니다. 인테리들은 우리 당이 내놓은 모든 로선과 정책들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혁명과 건설 사업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바쳤습니다.》

소설은 일제의 식민지노예생활을 거친뒤 남북으로 갈라진 비극적인 처지에서 지식인출신 주인공이

어떠한 시련의 길을 걸어왔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속에 어떻게 혁명의 주인으로 되어 빛나는 재생의 길을 걸어왔는가 하는 이야기로 될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당 지식인정책의 정당성을 확증하는것으로도 될것입니다.

나는 이 작품의 추고작업을 빨리 다그쳐 1.4 분기 내에 성과적으로 끝냄으로써 책이 독자들앞에 금년 중으로 기어이 가닿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힘을 들이면 들일수록 작품이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작품 수정과 추고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영웅전사들을 형상한 새 중편소설을...

정창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작가, 예술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 우리 인민군대의 **영웅성과 완강성을** 묘사하여야 하겠습니까.》

영웅전사들의 성격을 그리는것, 이것은 언제나 나의 마음을 흥분시켜온 문제입니다.

새해엔 중편소설 《피흘린 사람들》(가제)을 세상에 내놓겠습니다. 굵뜨게 한번씩 독자들과 만나군하는 자신의 변변치 못한 창작생활을 두고 낮을 붉히군합니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속에 살면서 글을 쓰고있는 나에게 있어 이것은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자주시대 력사의 복판길로 가고있는 동시대인들 앞에 하고싶은 말은 언제나 마음속에 차고넘칩니다.

《피흘린 사람들》역시 이때문에 쓰고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나는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이 미 제침략자들과 판가리격전을 벌렸던 락동강의 여류작전을 취급하고있습니다.

어제날의 평범한 우리의 로동자, 농민,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전쟁승리를 위하여 어떻게 모든것을 다 바쳤는가를 쓰는데 그의 형상과제가 있습니다.

가정과 애정 그리고 우정, 다음엔 상봉과 리별, 삶과 죽음 등 작중인물들의 생활과 얹음새는 단순하지 않지만 이 형상과제속에서 움직이고있습니다.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있습니다. 나는 썼다가는 지우고 그리고는 다시 씁니다.

새해에 독자들과 만나게 될 내 작품속에 시대의 힘찬 맥박이 흐르고 시대의 전투적감각과 정서가 흐르고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느니 이것뿐입니다.



# 높은 언덕으로!

김재규

해를 넘길 때마다 부끄럽게 생각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신임과 두터운 배려를 받기만 하면서 독자들을 만족시키는 훌륭한 작품을 내놓지 못하는것입니다.

새해에는 지금 마감단계에 있는 보건부문일군들의 투쟁과 혁명화과정을 내용으로 한 장편소설을 세상에 꼭 내놓겠습니다.

또한 새해에 나는 우리 나라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친히 시범을 보여주고계시는 인민적사업방법과 혁명적사업작품을 체현하고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지배인의 전형적성격을 그린 중편소설 《지배인》을 창작하기 위하여 현지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는 새해에 자신을 더욱 철저히 준

비하는데 힘을 넣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인테리들은 주로 기술과 지식으로써 사회에 복무한다는것을 명심하고 자기의 전공분야에 정통하며 과학기술적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자신의 정치사상적 및 예술적자질을 한계단 더 높은 언덕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새해에는 독서에 더 큰 힘을 넣으며 새로운 어휘와 명문장, 명대사들을 학습하며 탐구를 거듭하여 시대적인 감각에 맞는 묘사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풍만한 서정을 담아

리 맥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영원히 따르며 맞이한 격동적인 날이 영광의 길이 되어 이어지고 은혜로운 빛날이 되어 앞길을 비치며 또 한해가 찬란히 밝아온 1978 년!

우리 인민 모두가 7 개년의 크나큰 승리의 봉우리를 향하여 새 신들메를 죄여매고 달려가는 1978 년!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한 7 개년, 또다시 몇세기를 뛰어넘게 될 공산주의로 가는 이 길우에서 그 첫째 첫걸음을 떼는 시인의 흥분된 마음속에 새로운 결의를 가다듬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은 오늘의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복무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민들의 생활을 선도하는 영예로운 사명을 지닌 시인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새해에는 저의 시창작에서도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을 써도 시인의 개성적인 목소리가 울리고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인 서정성이 철철 흘러넘치는 시와 가사를 쓰려고 합니다.

의의있는 종자의 탐구, 풍만한 서정, 양상의 다양성, 시적언어의 련마, 이것이 저의 목표이며 결의입니다.

이런 시를 쓰기 위해 주체적문제사상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들끓는 현실속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출근길을 걸으며 농민들과 함께 포전에서 땀을 흘리기도 하며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 저의 수확을 하나하나 마련해나가겠습니다.

## 보다 다양하고 생활적인 시를...

오영재

새해에는 어떤 시들을 쓸것인가.

어떻게 하면 독자들의 사랑받는 시를 많이 쓸것인가.

시인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한 자책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두고 생각할 때 가슴이 무겁다.

독자들과 보다 친숙한 서정시들을 새해에는 많이 써보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들은 현실을 잘 알아야 하며 인민대중의 생활속에 깊이 파고들어가야 합니다.》**

이 귀중한 가르치심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주제범역과 시형식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할것 같다.

지난 한해의 나의 창작을 놓고 총화해볼 때 절실히 느끼게 된것이지만 인민들의 생활속에 깊이 침투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나의 시는 극히 제한된 생활밖에 다치지 못하였으며 그것도 생활을 개성적으로 독창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기때문에 류사성과 도식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나의 창작에서 몇가지 문제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해결해보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는 송가와 서정시창작에서 종전에 범하고있던 류형성을 극복하고 위대한 수령님께 향하는 인민들의 소박하고 진정에 넘치는 감정을 진실하게 그려보겠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무한한 행복과 영광을 생활적인 진실을 통하여 노래하겠다.

다음으로 나는 우리 시문학에서 흔히 다치지 못하고있는 당원의 수양과 품성에 대하여 교훈적으로 노래하는 시초를 묶어보려고 한다. 이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며 조건과 환경을 가림없이 성실하게 당을 받들어가는 고상한 도덕품성을 사람들이 가지도록 하는데 시문학이 응당히 참여하여야 할 생활분야라고 생각되기때문이다.

그밖에 혁명적동지애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주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양상과 시형식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싶은 욕망이 있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혁명적이며 당적인 우리 시문학발전을 위해 독자들이 원하고 우리 시인들이 원하는 문제들, 보다 생활적이고 보다 정서적이고 보다 다양한 시들을 창작하여 혁명문학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충실하겠다는 결의를 더욱 새롭게 다지게 된다.

## 혁명적인 가사들을 더많이 창작하겠다

전병구

위대한 사변들로 가득찼던 완충의 해 1977년도 저물고 새 7개년계획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친 영광의 새해, 승리의 새해 아침이 밝아왔다.

동녘하늘에 불타는 노을처럼 희망에 넘친 가슴을 안고 이 아침을 맞는 그 누구나 지난 한해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새로운 결의와 포부를 가다듬듯이 시인인 나 역시 새로운 창작적인 흥분과 열정으로 들끓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사는 한없는 영광

과 행복을 안고 충성의 열정으로 낮과 밤을 이어나갈 투쟁의 새해, 3대혁명의 붉은기치날이 속도전의 불바람을 거세차게 일으키며 주체의 강산을 더 아름답게 꽃피워나갈 이해에 나는 무엇을 쓸것인가.

지난해 《온 세상에 만발한 김일성화》를 창작하여 독자들과 비로소 낮을 익힌 제자신이 새해창작 결의를 다진다는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해에 무엇을 쓸것인가를 독자들과 약속해둬으로써 창작에서 보다 더 큰 전진을 이룩하려는것이다.

새해에 나는 좋은 노래를 창작하는데 온갖 정열을 다 바치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인 노래를 창작하는데서 가사를 잘 쓰는것이 중요합니다. 가사를 내용있게 잘 써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을 가슴속깊이 명심하고 가사를 내용있게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하게 창작하겠다.

우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노래한 혁명적인 가사들을 더 많이 창작하겠다.

말로써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당 정책을 기동성있게 작품에 반영함으로써 전체 근로자들을 혁명과 건설에 더 힘있게 고무해나갈것이며 우리 인민

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더 힘찬 증산의 불길을 높이도록 하겠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그림으로써 주체시대의 가사문학의 화원을 더 활짝 꽃피워나가겠다.

이 결의를 반드시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현실속에 깊이 침투하여 현실에서 보고 느낀 종자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즐겨 부를수 있는 전투적이며 낭만적인 노래, 통속적이면서도 예술성이 높은 노래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창작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창작의 붓을 옮겨가는 한자한자가 그대로 충성의 열정으로 꽃피도록,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작품으로 되도록 나의 온갖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가겠다.

## 교육레제의 찬란한 빛발아래 행복하게 자라나는 새세대의 모습을!

박춘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주체의 공산주의적교육강령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빛나게 관철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난 오늘의 현실은 우리 아동문학작가들에게 혁명의 필봉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 청소년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해낼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후대교육사업을 잘하여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을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으로써 혁명의 대를 깨끗이 이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새해에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의 위대한 생활력이 주체형의 공산주의새세대로 역세계 자라나고있는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라

나고있는가를 실감있게 보여주는 중편소설을 쓰려고 합니다.

비교적 큰 형식의 작품을 처음 쓰게 되는 조건에서 나는 지난날 자신의 창작에서 발로되고있던 일련의 부족점들을 대담하게 극복하고 이번 창작에서는 보다 더 진지하고 탐구적인 창작자세를 견지하려고 합니다.

인물성격 하나를 그러도 지난 세대들의 어린 시절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우리 시대 청소년들의 새롭고 아름다운 성격적특성을, 세부묘사 하나를 하여도 맑고 깨끗한 주체형의 심장을 가진 우리 시대 청소년들의 새로운 감각, 새로운 동심적정서를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긴장한 전투가 시작될것입니다.

나는 있는 힘과 지혜를 다바쳐 올해안으로 중편소설을 반드시 완성해냄으로써 적으나마 시대앞에 지닌 아동문학작가로서의 본분을 다하려 합니다.

## 혁명적시문학의 사상예술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오승련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높이 받들고 오늘 우리 혁명적시문학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내용을 풍부한 서정과 다양한 시형식에 담으면서 근로자들을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부르는 전투적기치로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우리는 최근 《조선문학》에 발표된 시들을 중심으로 혁명적시문학분야에서 이룩된 성과와 그것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가지고 토론하려고 한다.

### 1. 혁명적시문학-시대의 기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예술은 어디까지나 인민들의 현실생활과 그들의 투쟁을 옹계 반영해야 하며 인민들을 뒤로 돌아가라고 할것이 아니라 더욱 행복한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호소하여야 합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작가는 시대의 앞장에서 나가면서 생활을 선도하고 이끄는 기수가 되어야 한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시대의 앞장에서 나가면서 인민대중을 보다 큰 승리와 휘황한 미래으로 부르는 기수가 되는것, 이것은 우리 시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인민대중의 생활과 투쟁을 옹계 반영하며 인민들을 더욱 행복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호소하는 시대의 기수로 되는 여기에 우리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사람들에게 그처럼 힘과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는 위력한 전투적무기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전투적구호밑에 자연도 사회도 사람도 물라보게 달려가고있으며 어제날의 기적과 혁신이 매일은 벌써 평범하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어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인민대중의 사상미학적요구수준도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다.

이것은 우리 문학예술이 인민대중의 생활을 정당하게 반영하면서 인민들에게 계속 앞으로 전진할것을 호소하는 생활의 선도자, 시대의 기수로 되는 문제가 얼마나 절박하게 나서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받들고 오늘 우리 혁명적시문학은 이 절박한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면서 온 사회 주체사상화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시문학은 열성과 주정을 형상수단으로 하는 그 고유한 본성으로 하여 그 어느 문학형태들보다 시대정신에 민감한것이다.

시문학은 또한 짙막한 형식으로 생활을 반영하는 그 형태적특성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가장 예민하게 반영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시문학은 그 본성으로 보아 시대정신을 대변하기 위해 출현한 문학이라고 말할수 있다.

혁명적시문학은 인민대중의 앞장에서 그들을 보다 큰 승리와 투쟁으로 부르는 시대의 기수이다.

생활을 선도하고 이끄는 기수가 될 때에만 시는 시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시대의 진군사팔로 오래도록 우렁차게 메아리칠수 있다.

최근 시문학이 이룩한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먼저 우리 시들이 시대의 기수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확고히 지키고있다는것을 지적하여야 한다.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우리의 시편들을 통하여 독자들은 우리 시대의 힘찬 발구름소리를 그대로 듣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의 가장 전형적이며 가장 절절한 표현을 그대로 보고있다.

우리 시문학이 시대의 기수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데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상한 공산주의적덕성을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높이 칭송하며 그이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끝없는 충성심을 노래한 시들을 훌륭히 창작한것이다.

《천년을 만년을 부르며》(김희중)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에 바쳐진 많은 시들에는 그이께서 걸어오신 영광찬란한 혁명투쟁로정과 불멸의 업적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충성의 송가가 승엄하고도 격동적인 선율을 타고 힘있게 울리고있다.

흠모의 정 하늘에 담아 불러보면  
창조의 꽃구름 하늘가득 피여주시고  
칭송의 노래 대지에 새겨 불러보면

만풍의 황금나라 들가에 설레어주시여라  
 마음속 조용히 불러보면  
 우리모두를 다 알고계시는듯  
 인자하신 미소로 찾아주시는 그 영상  
 (《천년을 만년을 부르며》에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현명한 령도로 우리 혁명을 승리와 영광에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인민을 크나큰 사랑의 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 우리 혁명의 승리와 공산주의미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영광과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영상을 모시고 높이 칭송하며 그이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끝없는 충성심을 노래하는것은 실로 혁명적시문학이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한결같은 지향, 그들의 념원을 가장 절절하고 힘있게 노래함으로써 시대정신의 대변자, 시대의 기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한 결정적조건으로 된다.

우리 시문학은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을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칭송하며 그이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성심을 더욱 격조높이 노래함으로써 인민대중을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으로 부르는 시대의 기수로서의 가장 책임적이고도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시대의 앞장에서 인민대중을 선도하고 이끄는 시대의 기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려는 시인들의 지향은 또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노래한 시들을 왕성하게 창작한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로 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이며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이다.

3대혁명의 세폭의 기치높이 힘차게 나가는 이 장엄한 진군길우에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되어가고있으며 이 길우에 휘황한 공산주의미래가 찬란히 밝아오고있다.

전진하는 우리 시대의 이 거센 흐름과 전투적기백은 시초 《우리는 만수대언덕을 내려왔다》(김정곤) 《아버이심려를 덜어드리는 처녀》(조빈)등 3대혁명소조원의 형상을 노래한 시들에 잘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현

지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사상, 기술, 문화혁명의 전초선에 선 혁명전위이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의 친위대, 근위대이다.

3대혁명소조원의 가슴속깊이에 간직된 하나의 생각, 그것은 오직 아버지수령님만을 따르고 높이 우러러모시며 그이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다 바치는 불같은 충성심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우리 시문학에 새로운 서정적주인공으로 등장한것도 이들이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높은 수준에서 전형적으로 체현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 혁명적시문학은 이 충성의 열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르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앞장에서 나가는 혁명전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높은 미학적리상을 가지고 힘있게 노래함으로써 시대의 기수로서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 시문학이 시대의 기수로서의 자기의 확고한 위치를 견지하기 위하여 나서는 원칙적문제의 하나는 시인들이, 주체의 혁명적기치밑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열렬히 공감하고 적극 옹호지지하며 우리 시대를 크게 호흡하는 열정을 지니는것이다.

오직 혁명적열정으로 타번지는 뜨거운 심장을 지닌 시인들만이, 다시 말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울 불같은 충성심을 안고 시대와 동시대인간들의 생활과 운명을 한가슴에 받아안은 시인들만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살아남는 시형상을 창조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시인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주체의 관점과 방법을 체득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의 구현인 당정책을 뼈와 살로 만들고 그것을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어보고 창작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적시문학이 생활을 선도하고 이끄는 시대의 기수로서 될수 있는 결정적담보가 있다.

## 2. 서정성문제

주체적문예리론은 풍부한 서정성이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이라는것을 밝히고있다.

시문학은 생활을 객관적으로가 아니라 시인의 열정과 주정으로 노래하는 서정의 문학이다.

시에 서정이 없거나 메마를 때 그것은 이미 고유한 의미에서 시가 아니며 시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린다.

시가 시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거기에 서정이 있

기때문이다.

서정성, 이것은 생활을 주정으로 노래하는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인 동시에 그 위력의 원천이다.

하나의 자그마한 시가 심오하고 풍부한 사상을 담고 사람들의 가슴을 그처럼 절절하게 울려주는 것도 거기에 서정이 있기때문이다.

오늘 시문학에서 서정성을 강화하는 문제는 시와 노래로 충만된 우리의 벽찬 현실생활의 요구이기도 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벽찬 현실은 그대로가 시이며 노래입니다.》**

위대한 주체의 태양아래 자연도 사회도 사람도 몰라보게 달라져가는 우리의 장엄한 현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의 품에 안기여 그이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해 몸과 마음 다바쳐 일하며 싸우는 우리 인민의 보람찬 투쟁과 생활의 하루하루는 참으로 시와 노래로 가득차있다.

이러한 현실은 서정시에서 서정성을 강화하는 문제를 더욱 절박하게 제기하고있다.

여기에서 련시 《위대한신 품에 안겨》(김정곤)는 매우 귀중한 성과와 긍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보여주어주고있다.

아버이수령님의 위대한신 사랑의 품에 안기여 광휘로운 삶의 한복판으로 뿔뿔이 걸어가는 소박한 한 농촌녀인의 형상을 비상히 짚어고 정제된 시적 구조속에 담은 련시 《위대한신 품에 안겨》는 시적대상을 시인의 뜨거운 열정으로 서정화하고 시화한 우수한 작품이다.

아, 이 땅을 다 훑어지고 일어설수 없어,  
가슴에 불안고 차마 집으로 갈수 없어  
두고서는 차마 한발자욱도 옮길수 없어  
어머니는 아예 땅을 안고 누우시네

그러자 그 언제인가  
첫애기를 채우던 그 밤처럼  
마음은 속삭이고 노래부르고싶어...  
어머니는 가슴을 헤쳐  
대지에 젖을 물리고싶고...

아, 땅이 어머니를 안았는가  
어머니가 땅을 품었는가  
땅도 어머니도 위대한 품에 안겨  
말도 없이 깊어가는 밤

어머니는 잠이 드셨네

서른살에 처음 발편잠을 자고있네,  
고요한 밤  
별 많은 밤...  
(《땅을 분여받은 날 밤에》에서)

산비탈 돌밑에 아버지를 묻고 그밑에 남편과 세목숨을 묻고도 모진 운명이 여기에 또 비끄러매웠던 그 땅이었다.

시는 땅과 그처럼 숙명적으로 련결되었던 한 농촌녀인의 운명을 지난날의 기막히던 처지와 오늘의 꿈같은 현실과의 심각하고도 예리한 대조속에 보여 주면서 장군님께서 주신 땅을 받아안은 이 나라 농민들의 환희와 감격을 참으로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시인의 뜨거운 열정과 입김이 서린 이 시적인 화폭에는 실로 어느것이 시인의 주정이고 어느것이 시의 대상인가를 구분할수 없으리만큼 그렇게도 량자가 하나로 엉켜붙어 돌아가고있다.

시인의 심장과 시적대상이 하나로 융합된 시, 그리하여 시적형상이 노래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시인의 뜨거운 정열과 숨결로 안겨오는 이러한 시들을 우리 독자들은 가슴속깊이에서 다시금 다시금 되뇌여보는것이다.

시인은 대상을 격정적으로 노래하고있을뿐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 어떤 《결론》을 주지 않는다.

시는 노래하는 대상의 가장 특징적이며 본질적인 것만을 뜻깊고 세련된 시어로 개괄하면서 행과 행, 련과 련사이를 풍만한 서정으로, 시인의 뜨거운 숨결로 차넘치게 하고있으며 이것은 이 시의 독특한 여운으로 나타나고있다.

시는 끝났으나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살아남는 이른바 시의 여운이라는것은 시에 차넘치는 풍만한 서정의 파동이 아니겠는가.

시는 시인의 《친절한》 해설과 결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풍만한 서정과 그 서정의 물결을 타고 사람들의 가슴에 흘러드는 여운으로 독자들을 혹은 유쾌하고 명랑한 감정세계어로, 혹은 깊은 철학적사색과 명상어로 이끌어가야 한다.

우리 시문학의 서정성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요구는 시의 사상적내용을 깊이있게 하며 그 철학성을 보장하는것이다.

우리 시에서의 서정, 그것은 서정을 위한 서정, 자연만을 노래하거나 값싼 인정만을 노래하는 그런 서정이 아니다.

우리 시문학에서의 서정은 무엇보다 심오한 정치사상적내용을 담은 서정이며 철학적깊이를 가진 웅심깊은 서정이다.

오직 이러한 서정만이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그들의 가슴을 힘있게 두드리며 깊은 사상 정치적충격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시문학의 서정이 당의 심장을 지닌 시인들에 의하여 파악되고 체험된 계급적서정, 혁명적서정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 시문학에 흐르는 서정성의 이러한 본질적 특성으로 하여 시인들은 자기의 감정과 체험을 주정으로 노래하면서도 그것을 계급의 노래로, 광범한 인민대중의 사상 감정을 대변하는 시대의 노래로 울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사상적내용을 담는 것은 시작품에 구현되고 있는 서정의 폭을 넓히며 그 일반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써 우리 시문학의 서정성을 강화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확고한 원칙으로 된다.

시문학의 서정성문제를 논의하면서 우리는 서정의 진실성문제를 반드시 언급하여야 한다.

시의 서정성은 다름아닌 서정의 진실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무런 정서적색깔도 없으며 생활적내용도 희박한 그저 뚱뚱 뜬 추상적인 느낌과 감흥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며 보다 생동한 감정과 정서, 시인에 의하여 강요된 서정이 아니라 시인과 독자들을 사로잡는 진실하고도 절절한 서정이 우리 시문학에 귀중하다.

우리 시문학의 서정성은 생활이 안겨주는 서정의 시적반영이며 그 예술적일반화이다.

생활의 서정을 진실하게 노래하면서 그것을 시적으로 더욱 다듬고 강조할 때 시문학의 서정성이 이루어진다.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떠나서 우리는 시의 그 어떤 서정성에 대하여 기대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생활 감정을 떠난 그 어떤 추상적인 서정을 이야기할 수 없다.

시문학의 서정성을 강화하는데서 시의 음악성, 운율적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문장을 편결시켜놓으면 보통 글이 되고 마는 시는 들을 맛이 없다는 시창작의 본질적요구의 하나를 밝혀주었다.

시는 읽을 맛이 있고 들을 맛이 있어야 한다.

시가 읽을 맛과 들을 맛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시에 음악성과 톨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험이 잘 보여주는바와 같이 사람들이 시를 읽으면서 체험하는 사상정서적공감은 시의 내용과 함께 그 음악성과 톨조에서 온다.

시는 이 음악적톨조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급선을 튕겨주면서 정서적인 감흥을 불러 일으킨다.

산문화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시의 음악성, 운율을 살릴 수 없으며 따라서 서정의 나래를 활짝 펼 수 없다.

한마디의 시어와 적중치 못한 표현이 시형상전반에 심한 손상을 가져오며 정서적색깔과 그 흐름에 매우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시인들은 누구보다도 언어표현형식에 대한 섬세하고도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하나의 음절과 어휘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그것으로 시의 음악성과 독특한 운율을 조성하는데 숙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만 시의 사상적내용이 시적운율을 타고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감수될 수 있으며 읽을 맛이 있고 들을 맛이 있는 산문아닌 운문으로서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만 시행의 포화상태를 극복하고 시의 함축성과 간결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시의 감정조직을 그만큼 짜고 들 수 있다.

시문학의 서정성문제, 이것은 시인들의 생활체험에 대한 문제이다.

생활을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참으로 통감함이 없이는 시의 서정에 대하여 도대체 이야기할 수 없다.

시의 서정은 무엇보다 체험의 산물이며 생활이 주는 서정을 심장으로 뜨겁게 받아안은 시인의 숨결이며 입김이다.

생활을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통감하지 못할 때 허공에 뜬 감탄사와 수사학적질문이 란발되며 생활의 두리를 에둘 때 뻥뻥한 관조자의 얼굴이 《서정》의 외피를 쓰고 나타난다.

우리 시인들은 현실생활을 말그대로 온몸과 넋으로 깊이 체험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우리 시문학을 붓으로써가 아니라 심장으로 노래하는 문학으로, 체험된 서정과 열정의 문학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 3. 시인의 얼굴

주체적문예리론은 모든 예술은 언제나 비반복적이어야 하며 자기의 독특한 얼굴을 나타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창작은 그 본래의 의미에서 비반복적이며 독창적이다. 예술작품이 자기의 고유한 얼굴을 가지지 못할 때 예술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자기의 얼굴을 가지는 문제는 시인의 경우 특별히 중요하게 나선다.

그것은 시문학이 주정화된 서정의 산물이며 생활을 시인자신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문학이기 때문이다.

시는 시인에 의하여 파악되고 체험된 사상감정의 직접적인 개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시는 시인에 의하여 파악된 정서를 그대로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때문에 시의 매 구절, 매 말마디에는 시인의 사상 감정과 체험이 그대로 나타나며 지어 하나의 토에서까지 그것이 느껴진다.

이것은 시문학이 그만큼 창작가의 개성문제를 그 어느 문학형태보다도 더 절박하게 제기한다는것을 그대로 말하여준다.

우리 시인들은 창작에서 비반복성과 독창성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 자기의 얼굴을 가지고 자기의 체취와 자기의 숨결이 느껴지는 시를 쓰기 위하여 창작적 사색과 열정을 기울여야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눈, 당의 심장을 지닌 우리 시인들은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자기들의 개성과 재능을 마음껏 발양하고 창작에서 자기의 얼굴을 드러낼수 있는 온갖 조건과 가능성을 다 가지고있다.

중요한것은 우리 시인들이 창작에서 자기의 독특한 얼굴을 드러내보이려는 시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현실생활을 독창적으로, 개성적으로 탐구하고 파악하고 체험하며 그것을 또한 개성적으로 노래하기 위해 창조적열정과 진지한 창작적태도를 가지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창작가들이 현실생활을 개성적이며 독창적으로 탐구하여야 한다는 창작적진리를 밝히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것, 보고 느끼는 경우에도 예리하고 새롭게 보지 못하며 예민하고 섬세하고 뜨겁게 느끼지 못하는것을 보고 뜨겁게 체험하는 여기에 시인이 자기의 얼굴을 드러낼수 있는 바탕이 있다.

생활을 독창적으로 개성적으로 파악하려는 시인다운 자세와 립장이 없이 시인의 얼굴, 그의 고유한 창작적개성에 대하여 이야기할수 없음은 응당하다.

시의 사상적알맹이로서의 종자도 오직 생활을 독창적으로 개성적으로 관철하고 탐구하는 시인들에게만 잡힐수 있다.

시의 종자를 천다는것, 그것은 다름아닌 시인에 의하여 새롭고 독창적으로 탐구되고 파악된 감정과 느낌이외의 다른것이 아니다.

시형상으로 꽃필수 있는 서정을 새롭게 파악하고 그것으로 심장이 세차게 고동칠 때 시인은 시의 종자를 잡아쥐었다고 말할수 있다.

창작실천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시인이 똑똑한 종자를 잡았을 때, 다시 말하여 새로운 느낌과 정서를 심장으로 뜨겁게 받아안았을 때 시는 이미 그 성과가 확고한것으로 되며 반대로 느낌이 새롭지 못하고 그 충격이 강렬하지 못할 때 시의 감정조직에 무리가 생기며 시인의 론리가 그 정서를 가리우게 되며 총체적으로 시형식을 조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주체적문예리론에는 될수 있는대로 기발하게 착상하고 생신한 표현과 어휘를 골라쓰도록 장려하고 고무해주어야 한다는 창작적요구가 밝혀져있다.

주위현실에 대한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탐구와 파악은 기발한 착상을 전제로 한다.

그 착상이 기발하고 독특하지 못할 때 생활에 대한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탐구가 무의미하다.

기발하게 착상한 경우에만 생활을 개성적이며 독창적으로 탐구하고 파악하였다고 말할수 있으며 기발한 착상만이 한 시인을 다른 시인과 구별짓게 한다.

생활을 개성적이며 독창적으로 탐구하며 기발하게 착상하는것과 함께 그 상을 생신한 표현과 다양한 수법으로 나타내는것은 시인의 얼굴을 비쳐보이기 위한 다른 하나의 중요한 요구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작품창작에서는 한가지 처방만 가지고서는 성공할수 없으며 표현도 될수록 새롭게 하고 형상수법이나 어휘같은것도 작가가 자기 마음대로 골라쓸줄 알아야 한다.

한가지 처방만 가진다는것자체가 창작과 량립할수 없는 일이다. 새로운 체험과 느낌은 그 형상수법과 표현형식도 응당 새롭고 독특한것으로 되는것이 리치로 보아도 응당하다.

그리고 또한 일반적으로 형식이 내용에 반작용한다는것까지를 넘두에 둘 때 우리 시인들이 자기의 얼굴을 뚜렷이 하는데서 새롭고 다양한 형상수법과 표현형식의 탐구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이 더욱 명백하여진다.

우리 시인들은 한가지 처방, 하나의 틀에 매여달리는 현상을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무엇보다 새롭고 다양한 형상수법과 시형식, 새로운 표현과 시어를 찾아내어 창작에 적극 받아들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런 뜻에서 《어버이사랑에 대한 이야기》(박새옥)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조현동)등은 긍정적인 시도를 보여준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무릎을 가리운 병사의 낡은 솜옷  
전선에서 아버지가 입고 온것이리  
그이의 시선은 무거우셨고  
용감한 병사의 아들답게  
어깨를 쭉 펴고 서있는  
그 소년이 기록하신훈  
작은 어깨를 두드리시던 어버이수령님

멀리 시선을 드신채 말없이 서계시였다  
외투주머니에 손을 넣으시고-  
파철로 되어버린 공장  
병사의 낡은 솜옷을 입은 소년  
가혹한 전쟁을 겪은 이 땅은  
이 소년에게 아무것도 줄수 없었다  
.....



그날밤 평양에서는  
긴급히 내각회의가 소집되었다  
의례히 강철문제가 토의되리라  
일군들의 기대와는 달리  
뜻밖에도 내각회의에서는  
온 나라 아이들에게 옷을 공급할데 대한 의정이  
토의되었다

(《아버이사랑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는 가혹한 전쟁을 겪은 이 나라 아이들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아버지사랑에 대한 끝없는 감격을 은근하면서도 힘있는 음조에 담아 노래하고있다.

시에서 시적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인듯한 문장론적특성을 보여주면서도 그것이 산문화에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독특한 시적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우연하지 않다.

시는 여기에서 생동한 시적화폭의 제시로 시형상의 추상성을 극복하고있으며 전개되는 이야기속에 시인의 뜨거운 주정을 담은 새로운 형상수법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이래》는 남조선의 한 학자가 혁명의 진리를 깨닫기까지의 복잡다단한 로정을 시적으로 개괄하면서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남녘땅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끝없는 흠모의 정을 새로운 수법으로 노래하려고 한 정론적이며 철학적인 시라고 말할수 있다.

새로운 시세계를 새롭고 다양한 형상수법으로 노래하면서 우리 시인들이 시의 구성수법을 비롯하여 대구와 반복, 비약과 함축, 운률조성 등 시형상의 다양한 수법에 정통하고 그에 대한 창조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많은 시들에 대구와 반복의 수법이 많이 활용되고있다.

시인의 사상감정을 정서적으로 강조하고 력점을 찍으며 시적운율을 조성하여주는 대구와 반복의 수법이 우리 시문학에 필요하다.

그러나 이 수법도 노래하는 대상에 따라 가장 요긴한 대목에 숨씨있게 리용하지 못할 때 옹당한 시적효과를 낼수 없다.

시의 구성조직에 대하여도 같은 말을 할수 있다

시의 구성조직은 무엇보다 시의 감정조직이다.

체험된 감정을 그야말로 함축되고 정제된 시행과 시련으로 퍼나가면서 시인이 만약 그것을 다른 시들과는 구별되게 감정조직을 짜고들지 못하면 독자

들에게 그만큼 새롭고 인상적인 시적감흥을 불러일으킬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다양한 시형식의 작품을 적극 창작하면서 창작적개성이 가장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시형식을 독자적으로 개척하고 세련시켜나가는것은 우리 시인들이 자기의 독특한 얼굴을 가지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어떤 시인들은 시대를 받아안고 긴 숨결로 그것을 폭넓게 일반화하는 시적개팔력에서 뛰어났다면 다른 시인들은 생활적인 감정으로 시형상을 소박하게 노래하는데서 그 체취가 느껴지며 또 다른 시인들은 시에 흐르는 지성적높이로 하여 구별되기도 한다.

매 시인들은 자기에게 고유한 이러한 창작적개성을 적극 살리면서 혹은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는 정론시를, 혹은 꾸밈없는 생활적감정이 차넘치는 아담한 서정시를, 혹은 해학과 기지가 반짝이는 담시, 그리고 풍자시, 벽시 등 다양한 시 형식을 새롭게 개척할수 있으며 이 분야들에서 자기의 독특한 얼굴과 장기를 남김없이 드러낼수 있다.

시의 류사성은 구체적으로 시어와 시문장에서도 나타난다.

레컨대 많은 시들이 《했어라》라는 식으로만 노래한다고 할 때 여기에서 시인의 개성적인 목소리, 시인의 독특한 얼굴이 뚜렷하게 안겨올수 있겠는가.

시문학에서의 언어는 묘사언어문제와는 구별되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 양양된 정서상태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세련되고 응결된 언어문체적성격을 강하게 띠고있다.

서정적주인공의 개성적인 언어행위로서의 시어의 이러한 특성은 언어기교문제를 우리 시인들앞에 특히 날카롭게 제기하고있다.

사실 자기의 얼굴을 가진 시인들은 그 정서적색채와 함께 언어문체적색채로서도 다른 시인과 구별된다.

시인들이 자기의 얼굴을 가지는 문제는 시인이 시인으로의 사명을 다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뿐아니라 우리 혁명적시문학을 더욱 다채롭게 꽃피우고 그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매 시인들이 다 자기의 독특한 얼굴을 가지고 개성이 뚜렷한 훌륭한 시들을 쓸 때 우리 혁명적시문학은 그만큼 발전풍부화될것이며 자기의 전투적사명을 그만큼 더 훌륭히 수행할수 있을것이다.